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0. 11+12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0년 11월 1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ISO26000시대, 흥부자본주의로 가는 길

머릿글 이영권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
11·12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사장
- 정갑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세상을 보는 눈 황광석 동북아평화연대 사무총장

Membership Day

- 제5회 찾아가는 CEO교실 강진 영동농장
- 제6회 찾아가는 CEO교실 차움

강사칼럼

경영essay

회원&연구원소식

아카데미 뉴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Special Focus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명사초청특강 이혁병 ADT캡스 회장

발행인편지

전영기칼럼





성공신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극한기술, 공업용 다이아몬드와 일렉포일의 개발로

세상을 놀라게 한 일진의 도전이 에너지, 환경 및 신소재 분야로 이어집니다.

일진에게는 더 큰 내일이 보입니다. 더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미래창조기업



세계화 시대의 성공요소, 글로벌 마인드

21세기에는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지만 세계경제의 흐름 중에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파고는 역시 세계화라는 물결이다.

세계화란 각기 다른 분야에서 다르게 정의될 수 있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까지 각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의 인적, 물적 자원의 자국시장 진입을 어떤 형태로든 막아 오고 보호되던 시장이 21세기 중엽 이전에 완전하게 상호 개방이 되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세계시장으로 변해간다는 뜻이다.

세계시장의 개방을 전제로 하는 세계화가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자유무역에 의한 시장개방이 세계 각국이 지니고 있는 비교 우위산업에서의 특화와 건전한 경쟁력의 제고로 보다 큰 파이(pie)를 창출해내어 65억 인구가 보다 풍요로운 삶을 영위 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에서 찾을 수 있다. 한편 작금의 정보통신기술과 교통수단의 급속한 발달이 이러한 세계화를 급속하게 진전시켜 주는 요인들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는 21세기 세계화 시대에는 '거리의 파괴(annihilation of distance)'가 일어날 것이며, 미국 하버드대학의 라이샤워 교수는 '공간의 축소(shrinkage of space)'가 우리 생활 속 깊이 스며들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다. 이러한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변화(value shift)를 요구하며, 이러한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과 국가는 새로운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어렵다.

선진국 대열에 먼저 진입한 20여 개의 국가들 중 반 이상은 지하자원이 많은 국가들이다. 하늘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나라인 것이다.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참으로 잘 사는 나라로 가기가 쉽다. 개인으로 치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것과 같다.

그러나 지하자원이 없으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국가는 무슨 재미로 살아가겠는가? 하늘은 무심하지만은 않다. 다른 요소로 인적자원이라는 것이 있기에 살만 한 것이다. 인적자원만 가지고도 세계화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주인공이 되지만 하면 선진국의 대열에 얼마든지 합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화의 방향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워야 하며 새로운 세계의 도래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인력이 세계화되어야 하는데, 인력의 세계화는 언어의 세계화와 사고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화를 위한 언어는 당연히 영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외에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어 등을 권한다.

이상의 두 가지 외국어가 아니더라도 각자의 취향과 전문 분야의 특성에 맞는 외국어의 습득은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하나 이상의 세계어를 구사하게 될 때 우리나라의 글로벌경쟁력은 제고되고 세계화 시대의 주역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고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사고의 세계화란 우리 중심적인 사고에서 세계가 하나의 거대한 시장이 되고 있는 상황에 맞게 사고를 상대방 중심으로 하는 노력을 말하는데 그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매사 상대방의 역사와 관습 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다각적으로 하고 그들의 사고와 우리의 사고 사이의 괴리를 좁혀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세계인이 되고 경쟁력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언어와 사고의 세계화 노력은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더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성인들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과 함께 자녀들에게 그러한 기회를 일찌감치 주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배려해 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세계화 노력의 결과로 세계의 자원 부국들과의 경쟁에서 탁월한 국제경쟁력을 갖고 당당히 승리하여 부국의 위치에 오른 싱가포르로부터 생생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21세기, 세계화 시대는 완전한 무한경쟁의 시대이며 준비된 사람이나 국가에게는 커다란 가능성과 부를 가져다 줄 것이지만 반대의 부류에게는 뼈아픈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줄지도 모르는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는 새로운 시대인 것이다.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새로운 자기 무장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주역이 되도록 언어와 사고의 세계화 노력을 경주해 보았으면 한다. 이러한 노력이 바로 세계화 시대의 성공요소인 글로벌 마인드의 출발점인 것이다. **세계**



● 이영권 소장

1955년 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명지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KBS 라디오 '이영권의 경제포커스' 진행을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경제경영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다. 20년 넘게 SK그룹에 몸담았으며, 현재 명지대 교수 및 세계화전략연구소 소장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노사발전재단 · 인간개발연구원 공동주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특별세미나

세계적 컨설팅회사인 맥킨지는 한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여성인력 활용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가장 중요한 소비자로 떠오른 여성을 이해하고 21세기 환경에 적합한 조직문화를 만들려면 여성 인력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고위직 여성은 남성 위주의 직장문화를 가정 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고 여성 특유의 감수성으로 조직의 위험 요소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면 회사 전체가 유연한 사고를 지닐 수 있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매출 상승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21세기는 여성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최근 몇 년간 54% 선에 머물고 있다.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등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70%를 넘는 것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인 61.3%(2008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한국 여성의 경제활

동 부진은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 인간개발연구원은 공동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 개발'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이번 세미나는 11월 4일과 11월 18일 2차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4일 1차 세미나에서는 웅진그룹 이진 부회장이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환경 변화와 웅진그룹의 저탄소 경영을 통한 여성인력 활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원장이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전망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11월 18일 2차 세미나에서는 참존의 김광석 회장을 초청해 화장품산업에서의 여성인력 활용 사례를 들어보고, 에디코 김영철 사장으로부터 여성인재들이 만들어가는 동화 같은 기업의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특별세미나 1차

제1668회 11월 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진웅진그룹 부회장 - 기후·기업환경의 변화, 웅진그룹 저탄소 경영
김태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 기업의 여성인력 활용: 현재와 미래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개발 특별세미나 2차

제1670회 11월 1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김광석 (주)참존 회장 - 여성과 청개구리 경영
김영철 (주)에디코 사장 - 여성인재를 통한 동화 같은 기업 만들기



● 이진 부회장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 공주대 명예경영학 박사 | 정부 제1장관실 보좌관 | 제12대 국회의원 | 국무총리 비서실장 | 환경부 차관 | 공주영성정보대학 총장 |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 | 그린스타트 공동대표 | 대통령자문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에너지산업 분과위원장) | 제1, 2, 3대 환경부 자체평가위원장
• 저서 - 환경경영(공저), 지구시대의 환경정책
• 상훈 - 홍조근정훈장, 국민훈장모란장



● 김광석 회장

성균관대 약학과 졸업 | 성균관대 명예약학박사 | 1984년 (주)참존회장품 창업 | 대한화장품공업협회 부회장 | 서울대 AMP 총동창회장 | 경남하동향우회 회장 | 제17대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
• 저서 - 성공은 늘수록 커진다, 주가쓰시겠다 하라하
• 상훈 - 새마을훈장 협동장, 국민훈장 모란장, 훌륭한 기업가 대상, 하동군민상, 대한민국 가장신뢰받는 기업상, 자랑스런 성균인상외



● 김태현 원장

이화여대 가정관리학과 졸업 | 고려대 가정학 석·박사 | 성신여대 생활과학대, 심리복지학부 교수, 가족건강복지센터 소장 |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제4대 여성정책심의실무위원회 민간위원 | 한국여성학회 회장 | 한국노년학회 회장 | 성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회 공동위원장 |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 회장
• 저서 - 결혼과 사회, 21세기에 만나는 여성의 삶, 현대노인복지정책론 외



● 김영철 사장

1995년 (주)에디코 설립 | E&F English 영어학원사업 | 2005년 (주)고려진생 설립 | 한국전통무예협회 부총재 | 송례문복원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 | 전국소년소녀들기 중앙회 회장 | 대한삼보연맹 고문 |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 상훈 - 2009 우수중소기업인상,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2010 대한민국 참교육대상, 2010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선정, 제24회 책의 날 국무총리 표창장

■ 세계 속의 한국

제1669회 11월 1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이재오 대통령실 특임장관

1위 덴마크, 2위 뉴질랜드, 3위 싱가포르, 4위 핀란드, 5위 스웨덴, 13위 홍콩, 17위 일본, 21위 칠레, 24위 우루과이, 33위 대만, 39위 한국, 67위 이탈리아.

이것은 무슨 순위일까?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TI)가 178개국을 대상으로 발표한 '2010 부패 인식지수'를 수치화하여 청렴도 순위를 매겨 발표한 자료이다. 살펴보면 덴마크,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가장 청렴한 국가로 상위에 올랐고, 핀란드, 스웨덴이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가장 하위권에는 소말리아, 버마,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다.

이 자료가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하다. 부유한 나라들일수록 부패가 적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청렴과 책임감은 부패의 연장선상에서 신뢰를 얻는데 필수적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국의 국민과 정부가 금융시장의 불안과 기후변화, 빈곤을 비롯한 세계의 산적한 문제를 푸는데 부심할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패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재오 특임장관을 초빙하여 '세계속의 한국'이라는 주제를 통해 반부패와 청렴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부패 근절을 통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제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대 경제학과 졸업 | 고려대 교육학 석사 | 제15, 16, 17, 18대 국회의원 | 한나라당 원내총무,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 제17대 이명박대통령 당선인 특사(러시아) | 중앙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 미국 존스홉킨스 국제관계대학원 한미연구원 객원연구원, 겸임교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 저서 - 해방 후 한국 학생운동사, 긴 터널 푸른 하늘, 시가 있는 명상노트-이상화심훈, 물길 따라 가는 대한민국 자전거 여행, 백의에 흠을 묻히고 중군하라, 함박웃음 외

■ ISO26000의 출범과 한국기업의 글로벌 전략

제1671회 11월 2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 26000)이 국제표준화기구(ISO) 77개 개발참여국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93%의 찬성을 얻어 국제표준으로 최종 결정됐다고 지난 9월 19일 발표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은 조직 거버넌스와 인권, 노동, 환경, 공정운영, 소비자, 지역사회 등 7개 핵심과제에 대한 실행지침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조직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국제표준이다. ISO26000의 사회적 책임 원칙은 설명책임, 투명성, 윤리적 행동, 이해관계자 이해존중, 법치주의 존중, 국제 행동규범 존중, 인권존중 등 7가지이며, 사회적 핵심 주제로 조직 지배구조, 인권, 노동관행, 환경, 공정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7가지 영역의 36개 세부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ISO26000에 강제성은 없지만 이 지수가 국제 상거래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기업 경영 평가에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기술직 공무원으로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정보통신, 국제표준 등 산업·정보통신·과학기술·청와대를 두루 거친 기술정책 및 국제 표준분야의 전문가인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을 모시고 ISO26000 적용으로 변화를 맞이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업 | 연세대 전기공학 석사 | 미 위스콘신대 공공정책학 석사 | 제13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반도체전기과 과장, 기술표준원 원장 | 국제표준화기구(ISO, 제네바) 파견, 신성장산업연구팀 과장 |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실 행정관 | 중국질량협회 명예고문

■ 외국기업의 현지화와 감성 디지털 마케팅 전략

제1672회 12월 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방일석 올림푸스한국(주) 사장

디지털 카메라 제품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국내에 새로운 카메라 문화를 만드는데 일조한 올림푸스한국이 올해로 설립 10주년을 맞는다. 5명의 직원이 400명이 되는 등 10년 동안 100배 가량 성장했다.

방일석 대표는 설립단계부터 법인운영에 대한 전권행사와 발생수익을 모두 한국에서 채투자한다는 조건을 제시, 대부분의 외국계 회사들이 브랜드를 내세운 판매 전략에만 치중해 온데 반하여, 새로운 마케팅과 전략으로 본사와 완전 독립된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특히 조직에서 무서운 것은 외부의 적이라 아니라 '내부의 적'이라고 보고 소통경영을 가장 중시하였다. 실제로 직원들과 밴드를 결성해 직접 갈고 닦은 드럼 실력을 과시하는 등 소통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감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겸비한 CEO로서 인재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 일당백의 직원, 작지만 강한 회사로 올림푸스한국을 이끌어가고 있다. 한편 또 다른 10년 후를 준비 중인 올림푸스는 카메라에서 의료기기 등 새로운 사업에서 더욱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글로벌 기업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보여 주고 있는 방일석 올림푸스한국 사장을 초빙하여 외국기업의 현지화 전략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감성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중앙대 전기공학과 졸업 | 1988년 삼성전자 입사,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 | 2000년 올림푸스한국 설립 및 대표이사 | 올림푸스한국 자회사 비첸(VICHEN) 대표이사 | 올림푸스 영상시스템사업부 아시아헤드쿼터 총괄사장 | 올림푸스 China Investment 부회장 | 올림푸스이미징 차이나 회장
 • 상훈 - 무역의 날 은탑산업훈장, 한국의 CEO대상, 제12회 연세 최고경영대상, 2007년 대한민국 글로벌경영인 대상, 2009 보프스 글로벌 CEO 외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

제1673회 12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 CJ그룹 회장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다.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300만 개를 넘어섰고, 고용된 종사자 수는 약 1천 200만 명을 웃돌고 있다. 전체 인력의 88%를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의 경쟁력 기반이 강해진다. 그런 관점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설계에서 생산까지, 구매대금의 지급에서 중소기업 직원의 교육 훈련까지 다양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이 없으면 대기업도 없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이다. 부족한 자금과 인력으로 출발했지만 중소기업만의 분명한 차별화 요소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손경식 회장은 '강한 중소기업은 경쟁력이 높은 기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독창성이 있어야 하고, 품질이 좋아야 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또한 창의성이 앞으로 기업의 생명이며, 창의성을 통해 기업이 발전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펼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4년간 CEO로 활동하면서 현재 CJ그룹의 수장이자 대한상공회의소를 이끌고 있는 손경식 회장을 초빙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미래 경영 환경에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 美 오클라호마주립대 경영학 석사 | 삼성화재해상보험(주) 사장, 부회장 | CJ(주) 부회장, 회장 | CJ그룹 회장 | 한중민간경제협의회 회장 | 지속가능경영원 이사장 | 환경보전협회 회장 | 한국경영교육인증원 이사장 |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지식서비스산업협의회 회장
 • 상훈 - 석탑산업훈장, 제16회 신산업경영대상 신산업경영인, 금탑산업훈장, 한국능률협회 선정 한국의 경영자상, 제19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상 외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동향과 대응방안

제1674회 12월 1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지난 2년간 세계는 약 80년 만에 가장 심각한 금융, 경제위기를 맞았다.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붕괴와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사태로 시작된 선진국의 금융위기는 리먼 사태를 계기로 신흥시장국 등에 급속히 파급되면서 세계경제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를 겪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G2시대가 대두하는 등 세계경제 지도도 바뀌고 있다.

위기 직후 취해진 세계 각국의 팽창적 재정정책, 통화정책 기조로 인해 세계경제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금융정책, 외환정책 등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도 위기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는 할 수 없다. 이러한 정책 기조가 마냥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국과 유럽경제는 회복세가 주춤해지고 침체에 빠질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글로벌금융안전망과 금융시스템 안정, 환율문제 등 각종 의제를 성공적으로 조율해 세계에 한국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나아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중국, 인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로 옮겨갈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현오석 KDI 원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올 새로운 경제시대의 동향과 함께 우리 경제의 대응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 행정학 석사 | 美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 세계은행(IBRD) Economist | 재정경제부 예산심 의관, 경제정책국장, 국고국장 |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 조정실장 | 재정경제부 세무대학장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 연구원 원장 | 공공기관(공기업) ·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 KAIST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 상훈 - 녹조근정훈장

2010 인간개발연구원 송년의 밤
CEO 파티에 초대합니다

- 일시 : 12월 23일(목)
- 장소 :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 문의 : 인간개발연구원 (02-2203-3500)

*상세 프로그램은 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Issue & Seminar 1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주) 사장

9월 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크리스탈볼룸



제1661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합작기업으로서의 도레이첨단소재의 성공요인과 미래전략



사진·정용달 팀장

도레이첨단소재는 1999년 12월에 창립된 회사로 자본금 4천 150억 원에 매출 9천 500억 원, 영업이익 약 1천억 원, 부채비율 28.6%의 회사다. 폴리에스터 필름사업, IT소재사업, 부직포사업, 기능성 수지사업, 폴리에스터 원사사업 등 5가지 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 중 폴리에스터 필름 사업은 한국에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다.

1999년 일본 도레이와 새한이 합작할 당시만 해도 380억 원의 적자사업이었다. 매출은 4천억 원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작년도 매출이 9천 500억 원, 금년에는 1조 2천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재무 안정성, 기술이전이 회사 성장 견인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첫 번째가 재무적 적합성이다. 도레이는 새한과의 합작 과정에서 6천억 원짜리 자산을 인수하면서 자기자본금 3천억 원을 넣었다. 나머지 3천억 원을 빌렸는데, 한국에서 빌리면 이자만 10%가 넘었기 때문에 일본개발은행에 부탁했다.

그런데 그 빌린 돈을 바로 가져올 수가 없어서 일본개발은행이 그 돈을 한국산업은행으로 빌려준 뒤 도레이새한이라는 회사를 만드는데 대출해주도록 하는 브릿지론을 이용했다. 이 때의 이율이 5.8%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자기자본금 비율을 높이고, 저리의 돈을 들여오는 재무적인 안정성이 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두 번째는 도레이로부터의 기술이전이다. 도레이도 그렇지만 새한도 합작하기 전 20년 동안 필름사업을 해왔는데 합작하고 보니까 기술 수준이 달랐다. 똑같은 필름을 우리는 2볼을 받고, 도레이는 2.5볼을 받고 팔았다. 그래서 도레이 본사의 기술자들을 불러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가 부족한지 조사해보라고 했다.

그 후 1년에 걸쳐서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기술적인 지도를 받으면서 고쳐 나갔더니 품질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 당달아 제품 부가가치도 올라갔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특수 제품도 기술이전을 통해 생산할 수 있었다. 과거 우리 회사의 신사업 매출 비중이 5%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28%에 이르고, 이익의 40%가 신산업에서 나오고 있다.

기술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레이의 글로벌 판매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의 강점 중 하나다. 예전에는 제품을 대부분 동남아시아로 수출했다. 그러나 지금 동남아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은 하나도 없다. 전량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한국에 판매하고 있다. 근래에는 중국에도 조금씩 수출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영하면서 어려운 게 환율 리스크인데 우리는 자동으로 환헤지(換-hedge)가 된다.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올라가고, 유로가 내려가면 엔화가 올라가 리스크를 줄여주고 있다.

도레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세 번째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리의 경쟁력이다. 구미에 1, 2, 3공장이 있는데, 특히 2공장은 전 세계 폴리에스터 공장 중에서도 최첨단이다.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와 로봇에 의해 가동되고 있으며, 사람은 이를 관리하고 유지 보수할 뿐이다.

구미 제2공장에 가면 기념탑이 하나 있다. 제2공장을 건설할 때 제품 수요 폭증으로 공기 단축이 회사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하루라도 완공을 앞당기면 하루에 5천만 원씩 이익을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공장을 짓고 나서도 용접과 배관 공사 등으로 생긴 가루나 먼지 때문에 기계에 원료를 투입하고 첫 가동을 하면 제품이 시커멓게 나왔다. 이런 이물질 제거하고 공장을 정상화하는데 한 달 정도가 걸렸다. 나는 현장의 직원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공기를 한 달만 앞당기면 15억 원의 이익이 발생한다. 첫 가동을 할 때 제품에 이물질이 없도록만 하면 공기를 한 달 단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만약 성공하게 되면 1억 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반신반의하던 직원들도 강하게 설득하고 당근을 제시하자 결국 동의했고, 그때부터 직원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용접 공사를 하다 보면 찌꺼기가 나오는데, 직원들이 일일이 그걸 모두 닦아냈다. 퇴근할 때는 그날 공사를 마친 부분에 비닐을 씌워서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했다.

그렇게 6개월간의 공사가 끝나고 공장을 처음 가동하는 날이 왔다. 원료를 투입하고 기계를 돌리면 12시간 후에 제품이 나오는데, 전 직원이 아침부터 나와서 기대를 하고 기다렸다. 밤 12시쯤 드디어 첫 번째 제품이 나오는데, 곧바로 A급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직원들 모두가 부둥켜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바로 다음날 약속한 격려금 1억 원을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직원들이 포상금을 그냥 쓰기에 아깝다며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써 달라는 부탁과 함께 6천만 원을 되겨져왔다. 당시 함께 일했던 직원 420명의 이름이 모두 적혀있는 기념탑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소통과 원칙을 중시하는 경영철학

도레이라는 회사는 사람을 중시한다는 측면에서 내가 경험했던 삼성과 닮은 점이 많다. 나는 두 개의 문화를 접합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문화에서 좋은 것만 조합해서 우리 회사의 고유문화를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열린경영이다. 매월 1일은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월례조회를 한다. 이 자리에서 지난달 회사 전체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흑자와 적자가 났는지를 모두 공개한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은 연말쯤 되면 보너스를 얼마나 받게 될지 대충 짐작할 수 있다. 모든 걸 오픈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 경영전략회의에서 목표를 잡을 때는 노조 간부 전원을 참석

시킨다. 그래서 돈 1억 원 벌기가 얼마나 힘들고, 이를 위해 임원과 간부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보여준다. 그래야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다. 경영진이 올 초 영업이익 목표표를 95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을 때 아무런 반대가 없었던 것도 그런 맥락이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경영의 원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1997년 제2공장 건설을 끝내고 구미의 공장 2개를 총괄하는 구미사업장으로 취임했을 때, 인력 현황을 살펴보니 구미공장에 1400명의 인력이 있었다. 곧바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해 900명의 조직으로 변화를 꾀했다.

당시 회사에 버스기사, 지게차 기사 등 운전기사만 100명이었다. 버스 기사들은 퇴직금을 지급하고 그 돈으로 회사를 만들도록 했다. 물론 버스도 모두 쫓았다. 지게차 기사들도 지게차를 내 주고 앞으로는 일한만큼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렇게 기사들을 모두 개인 사장으로 만들었다.

회사 구내식당에 조리사만 30명이었다. 이것도 바꾸자고 해서 외부전문기관에 맡기자고 했더니 음식의 양과 질이 떨어질 거라며 반대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해보자고 했다. 평소에도 식당에 불만이 많으면서 개혁하려니까 왜 반대하느냐면서 결국 바꿨다. 신세계푸드에 식당경영을 맡기면서 기존의 종업원 30명을 모두 인수하라고 했다.

그랬더니 결과가 금방 나왔다. 기존에는 식당에서 쌀이나 배추 등 식자재를 필요할 때마다 소량으로 구매했다. 하지만 신세계는 주식과 부식을 트럭으로 조달했고, 당연히 비용도 절반으로 줄었다. 그러자 곧바로 음식의 질도 올라가고 양도 좋아졌다. 전문회사가 경영을 하니 서비스도 좋고, 관리도 잘 됐다. 결국 직원들도 경영 합리화를 위해 사장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현장을 지키며 직원들의 행동과 사고를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실제 나는 신입사원 때부터 현장에서 교대근무를 한 덕분에 직원들이 800명이 될 때까지는 직원들의 이름을 모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Human Development CEO Forum

글로벌기업의 우수사례를 전합니다.

인간개발연구원

한국경제



두 외우고 다녔다. 현장에 가면 직원들의 이름을 부르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경영을 하면서 도레이와 상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기년도 경상이의 목표설정이다. 2003년 초, 나는 금년엔 400억 원의 이익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 전년도 경상이익이 260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해 일본 본사에서는 300억 원만 해도 잘 하는 거니까 현실적인 목표를 잡자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는 대신 목표액 이상으로 나오는 이익금의 사용은 나에게 맡겨달라고 했다. 어떻게 사용할 거냐는 질문에 4분법을 쓰겠다고 했다. 300억 원 이상 나오는 이익금은 4등분을 해서 회사의 미래를 위한 투자, 주주들에 대한 배당,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한국사회 발전을 위한 기부 등을 하겠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그렇게 상의하고 회사로 돌아와 전 직원들에게 논의했던 이야기를 전하면서 한 번 해보자고 의지를 다졌다. 그때부터 직원들도 변하기 시작했다. 전등을 켜 놓고 밥 먹으러 가는 경우가 없어졌다. 제품의 불량률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결국 그 해 420억의 이익이 났고, 직원들은 400%의 성과급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그 해 연말에 노사관리 대상, 에너지관리 최우수기업상, 품질관리 경영대상 등의 수확을 거뒀다.

직원들과의 약속을 지키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노조도 회사가 뭐든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회사의 퇴직률이 2.2%밖에 되지 않는다.

친환경소재 등에 2조 3천억 원 투자 예정

앞으로 우리 회사는 어떤 모습일까? 도레이와 삼성을 비교해 보면 70년대 내가 입사할 당시만 해도 도레이가 삼성보다 훨씬 컸었다. 그런

데 70년대 삼성은 전자사업에 뛰어들었고, 도레이는 기존에 하고 있던 섬유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했다. 그 차이가 오늘날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왔다. 물론 삼성이 그렇게 한 것은 당시 우리나라가 전자산업을 전면적으로 지원했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2020년대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19개 과제를 발표했다. 그 과제를 보고 우리와 관련한 것들을 뽑아봤다. 도레이가 기술을 갖고 있거나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는 것 등을 뽑았더니 5가지 분야 10개 사업이 나왔다.

우리는 앞으로 2020년까지 10개 사업에 2조 3천억 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소재 분야가 중요한데, 탄소섬유의 경우 무게는 쇠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강도는 10배나 강하다. 극단적으로 쇠의 40분의 1 정도 무게면 같은 강도를 낼 수 있다. 전 세계 자동차 생산량이 6천만 대이다. 이 중 1kg만 탄소섬유로 바꿔도 6만 톤이다. 지금 전 세계 탄소섬유 사용량이 4만 톤밖에 되지 않는다. 1kg만 바꿔도 지금 생산량의 1.5배가 필요하다. 그만큼 앞으로 유망한 사업이다.

항공기 역시 마찬가지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의 날개만 탄소섬유로 만들어 항공기 한 대에 3톤의 탄소섬유가 들어갔다. 그런데 동체까지 사용하면 33톤의 탄소섬유가 필요하다. 항공기를 탄소섬유로 만들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라는 회사가 합작기업으로 한국에 들어옴으로써 한국 경제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한·일 간 무역역조가 370억 불이다. 그 대부분이 소재들이다. 휴대폰, LCD TV, 반도체 핵심소재가 모두 일본에서 들어온다. 우리는 이것을 국산화시켜서 거꾸로 일본에 수출하고 있다. 결국 우리와 같은 회사가 100개만 생기면 무역역조도 없어질 것이다. **KBKIM**

제166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G20 정상회의를 통해 본 한국경제의 실상과 미래성장 전망

세계경제는 내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속화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대두된다. 어떤 기술이 어떻게 갑자기 등장할지 모른다. 삼성, LG가 세계시장을 휩쓸던 휴대전화 시장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크게 요동치기 시작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원리를 발표할 당시 물리학계는 그의 이론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아인슈타인에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설명해 보라’고 했다. 그러자 아인슈타인은 ‘지금 자네에게 5분의 시간이 있는데, 그 5분 동안 뜨거운 물속에 손을 넣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5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시간 동안 사랑하는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이 두 개의 5분이라는 시간을 과연 같다고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이 원리는 오늘날 경제의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21세기의 1년과 18세기의 1년은 결코 똑같은 수가 없다. 기업이 모든 노력을 다해 개발한 제품이 시장을 석권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2.5년을 버티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G20을 통한 국제공조 본격화

경제는 본질적으로 안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면 경제정책 담당자들이 내리는 처방은 의사와 비슷하다. 의사가 비슷한 증상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약을 처방하듯 경제 문제도 역사적으로 비슷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책을 세운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하자 세웠던 대책도 사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의 교훈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대공황 당시 각 나라는 보호무역, 관세인상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경기가 회복되는데 25년이 걸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대부분의 나라가 국제적 공조를 하기로 판단한 것도 과거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처음으로 선진국과 신흥국의 공조시스템인 G20의 탄생 배경이기도 하다. 2008년 9월에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G20은 바로 그해 11월, 1차 회의를 갖고 금융완화, 금리인하 등의 대책을 세웠다. 동시에 재정지출 확대, 국가별 보호무역 저지 등을 주장했다.

현재 세계경제는 G20의 국제적 공조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경우다. FRB 주도로 통화량을 늘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한편 중앙은행이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세계경제가 이만큼이라도 회복된 것은 G20이 공조를 통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선진국은 여전이 어렵지만 다행히 신흥공업국들이 성장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지출 확대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크다. 현재 세계적으로 풀린 자금의 유통속도가 느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지만 경제가 회복될수록 자금의 유통속도도 빨라진다. 풀렸던 돈을 어떤 방법으로든 회



사진·정용달 팀장

수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출구전략이다. 출구전략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환율전쟁 속 자국 실리 챙기기 우선

세계경제가 위기를 맞은 후로 G20이 공조하면서 세계적으로 논의할 것들이 매우 많아졌다. 위기 이후 미국의 위상이 굉장히 약화되었다. 반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들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환율문제다. 세계의 기축통화는 여전히 달러이지만 미국이 경제 회복을 위해 통화를 남발하면서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달러의 가치 하락은 우리 기준으로 환율이 내려간다는 말이다. 이를 억제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달러를 열심히 사들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계의 투자자들이 일본 엔화에 주목하고 있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10년의 침체기에도 끄떡없는 일본경제를 보면서 엔화가 가장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울상이다. 환율이 작년보다 30%나 올랐기 때문이다. 더욱이 총리가 바뀌면서 경제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최근 일본의 중앙은행이 나서서 하루에 1조 엔씩 엔화를 풀겠다고 발표했다. 미국과 일본이 둔쟁기 경쟁이 붙은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일본이 아니라 중국에 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경제의 흑자와 적자 폭이 엄청나게 커졌다. 흑자를 보는 나라는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고 적자를 보는 나라는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큰 폭을 만든 흑자의 주역이 바로 중국이다.

이런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이 환율 타협을 해야 하는데,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그것이다. 위안화 절상으로 흑자폭을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GDP 규모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2위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국은 신흥공업국가이고 경제가 불안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수출을 많이

하고 외환보유고를 늘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2조 4천 억 달러로 세계 전체 달러의 4분의 1에 해당한다.

이 같은 환율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뻔하다. 달러와 엔화의 가치는 갈수록 떨어질 것이고, 중국에는 위안화의 가치도 떨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환율전쟁은 국제공조를 외치면서도 돌아서면 자국의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 세계경제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경제의 노쇠화, 과도한 복지비, 양극화 극복해야

금년 11월 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우리는 개최국으로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현안들이 있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너무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인구가 너무 빨리 감소하고 있다. 국민소득이 4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인구감소 현상이 나타나야 하는데 우리는 2만 달러 수준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도 심화되는 추세다.

사회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도 문제다. 내년 재정의 28%가 복지와 관련한 예산이다. 소득이나 재산 상태와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무임승차가 가능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할 것이다. 다음 선거가 돌아오면 정치권에서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으로 공약이 나올 지도 모를 일이다. 국민소득은 2만 달러인데, 정치인들의 공약과 일부 국민들은 4만 달러 국가들이 누리는 사회복지 수준을 원하고 있다.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로 인해 기업가와 근로자의 형그리정신이 사라지고, 경제가 역동성을 상실하고 있다.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양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공정사회'도 그 근거가 여기에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나라 중산층이 65%였다. 이것이 2009년 59%로 줄어들었다. 중산층이 줄고 상위층이 늘어나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하위층이 18%로 늘었다. 하위층은 한 가구당 소득 150만 원 미만을 말하는데,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하위층이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Human Development CEO

중은사립대학을 편입합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지수는 1979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해 1990년대 중반 고성장과 더불어 양극화가 해소되는 균형성장을 이뤄 세계적인 칭송도 받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양극화 지수가 급격히 올라갔다.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다. 물론 개인이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버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이 시장경제의 근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 연세대 원주캠퍼스 부총장으로 근무하면서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크다는 것, 같은 하늘 아래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지역 여론 또한 연세대가 원주에 가 있긴 하지만 실제 연세대가 강원도에 기여하는 바가 별로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세계 100대 명문대학 10개는 만들어야

과거에는 경제성장을 위해서 많은 자본이 필요했다.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이 그것이다. 못 살 때는 자연자원이 경쟁력의 원천이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값싼 임금을 바탕으로 한 노동력이 경쟁력이 된다.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자본이 경쟁력이 된다. 중국이 지금 이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러다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서면 지식정보가 경쟁력이 된다.

그런데 국민소득 5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그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원천은 사회 전체의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새로운 자원이 필요한데, 그것이 사회적 자원이다.

제3의 자본인 사회적 자본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사회적 자본은 개인, 기업, 국가, 언론, NGO 등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주체들 간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자본을 말한다. 이것을 형성하는 기초가 '신뢰'이다. 신

뢰만 구축된다면 무슨 일이든 도모할 수 있다. 하지만 신뢰가 없기 때문에 관청의 허가를 받기 위해 수많은 서류를 떼어야 하고, 심지어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녹음까지 해야 한다. 이 비용만 줄어도 사회와 국가의 수준이 몇 단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우는 사회적 자본 비율을 조금만 올려도 약 2%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회적 갈등의 비용으로 GDP의 27%를 낭비하는 우리나라가 되새겨야 할 부분이다.

제조업 중심의 우리경제는 앞으로 탈산업화 하여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가야 한다. 인력부족으로 제조업 중심은 경쟁력에 한계가 있다. 이를 이루려면 제도, 인력, 정서가 많이 바뀌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전문인력이다. 그래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이 크다.

영국의 <타임스>가 매년 발표하는 '세계 200대 대학' 중 100대 대학 명단에 들어가는 한국의 대학은 2곳뿐이다. 포항공대가 역사상 처음으로 28위를 했고, 카이스트가 79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최고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109위, 연세대가 190위에 겨우 들었다. 포항공대의 학생정원은 350명밖에 안 되지만 등록금의 14배를 학생들의 교육비로 투자하고 있다.

이에 반해 GDP는 우리나라의 20분의 1 수준인 중국의 경우, 100대 대학에 5개나 선정됐다. 5년 전부터 세계적인 전문인력을 키운다는 목표로 GDP의 1%를 대학육성에 투자한 결과이다. 중국 GDP의 1%면 10조 원으로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입시문제, 사교육문제가 심각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자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세계 100대 명문에 들어가는 대학을 최소한 10개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열릴 것이다. **김재민**

아픈 역사를 뒤로 하고 희망의 땅으로 거듭난 연해주

- 짧지만 감동이 길었던 연해주탐방기

추석맞이 고려인문화한마당 행사, 연해주에서 개최

지난 9월 25일, 러시아 연해주 우수리스크시에서 뜻 깊은 행사가 열렸다. '추석맞이 고려인문화한마당' 행사가 고려인문화센터 앞마당 야외공연장과 그 주변에서 1천여 명의 고려인동포들과 러시아 시민들의 축하 속에서 개최된 것이다.

1860년대 식량을 제공했던 생명의 땅 연해주, 1910년대 우국지사들의 땅 연해주,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던 절망의 땅 연해주, 1990년대 맨손으로 다시 찾아온 약속의 땅 연해주, 2010년 현재 강인한 생명력으로 자활의 터전을 일구는 희망의 땅 연해주. 이렇게 한 많은 사연과 희망이 서려있는 연해주에서 힘겹지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고려인동포들은 보여주었다. 차례상을 차리고, 한복을 입고, 어른들에게 절하고 덕담을 나누는 추석 의례를 재현하고 청소년 아리랑예술단, 할머니 모란봉가무단, 호랑이태권도단, 러시아 민속무용단들이 흥겹고 아름다운 공연을 펼쳤고, 공연장 주변에서는 팽이치기, 투호놀이, 씨름, 널뛰기 등 다채로운 전통놀이체험 행사가 열렸다. 마지막에는 다함께 강강술래를 추며 축제의 흥을 돋우기도 했다. 공연을 지켜보는 동안 웃고 울고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다.

3박4일, 짧지만 감동이 길었던 연해주탐방

동북아평화연대(이하 동평)가 방문단을 모집하여 3박4일간 연해주를 다녀왔다. 동평 김수필 공동대표와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부부를 비롯한 총 11명이 고려인들의 추석맞이 축제에 참여하고 한글교육기자재 성금을 전달하며 발해와 항일독립유적지들을 탐방하고 고려인들의 삶의 현장을 둘러보고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첫날은 블라디보스톡을 탐방했다. 2012년에는 블라디보스톡에서 APEC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일원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동양을 중시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우리 돈으로 5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항만, 공항, 휴양시설, 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대대적인 SOC사업을 펼치고 있다. 러시아의 최변방 극동지역 연해주가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놓여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다.

둘째 날은 신한촌기념비를 방문하여 한때 코리아타운이자 항일독립투쟁의 핵심지역이었던 신한촌을 되새기고 우수리스크시 고려인문화센터로 향하여 추석맞이 고려인문화한마당 축제에 참가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동평이 주축이 되어 2009년 10월에 개관하였으며, 연건평 1,200평 규모에 고려인이주역사관, 전통문화체험실, 한글교육센터, 정보화교육센터, 도서관, 외래병원, 다목적공연장, 식당, 고려인동아리 사무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려인문화센터는 개관 1주년 만에 명실 공히 고려인동포사회의 메카가 되었다. 각종 회갑연, 결혼식, 돌잔치 등이 주말마다 열리고, 전통문화체험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가장 많이 찾는 명소가 되었다. 한글교육센터와 정보화교육센터는 유소년반부터 성인반까지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다.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가 스스로 운영하고 있지만 운영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수익 공간보다 공익 공간을 많이 배치했기 때문이다. 부족분은 동평을 비롯한 시민단체와 기업인들의 후원으로 채워가고 있다.

희망의 땅 연해주에서 고려인들의 자활 돕는 동평

셋째 날은 고려인정착마을인 우정마을을 방문하고, 그 곳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장을 풀었다. 동평



● 황광석 사무총장

1962년 생으로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2002년 동북아평화연대 기획실장으로 동평 활동을 시작해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2007년 동평이 설립한 사회적기업 '주바리의꿈' 대표이사에 취임했으며, 현재 동평 사무총장으로 연해주 고려인들의 자활과 안정적 터전 마련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발해외성터에서 서북쪽으로 바라본 장면. 솔빈강이 구비쳐 흐르고 있으며 벌판이 끝없이 이어져 보인다.



북공연 장면, 뒤에 보이는 건물이 고려인문화센터이다.

이 2004년부터 ‘고려인농업정착자활캠페인’을 추진하여 현재는 230여 고려인가정이 동평과 함께 경제적 자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다. 친환경 자연농을 재배하는 500만 평의 농장과 6곳 고려인정착마을의 공동작업장과 30개 동의 비닐하우스에서 곡식 재배, 청국장 가공, 된장, 메주 제조, 야채 농사, 돼지 사육, 양계, 야생초 채취,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사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고려인들과 함께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동평이 2005년에 설립한 사회적기업 (주)바리의 꿈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생산량에 비해 판매가 부진하여 매출증가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상황이다.

동평이 운영하는 프리팹농장과 아그로상생이 운영하는 농장도 둘러보았다. 지평선 너머까지 끝없이 펼쳐진 농장과 과거 고려인들이 황무지를 개간하여 수로를 파서 논농사를 지었다는 설명에 일행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그로상생은 현재 약 4억 평에 달하는 농지를 확보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도 2009년부터 3천만 평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남양알로에는 황금이라는 특용작물을 재배하고 있다. 경상남도도 동평과 2년간 시범포사업을 통하여 내년에는 30억 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본격적인 농업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사료작물의 확보를 위해 진출한 기업도 다수 있으며, 강원도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한우축산농가에게 친환경적이고 저렴한 조사료공급을 위해 연해주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이 부족한 한반도로선 연해주가 식량지급 대안지역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넷째 날은 발해성터와 거북이공원 등과 독립운동가 이상설유허비, 최재형 생가, 국민의회 회의실 건물 등을 둘러보고 다시 고려인문화센터를 찾아가서 김니꼴라이 고려인민족문화자치회 회장과 김발레리아 부회장 등을 만났다. 감동적인 ‘추석맞이 고려인한마당’ 행사를 보고 그냥 한국에 돌아갈 수 없다며 김창송 회장 등 기업인 세 분이 모금한 3천 불을 고려인문화센터에 기부하기 위해 서였다. 예정에 없던 기부금 전달에 고려인동포들이 감격해 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뿌듯했다.

기업인의 롤 모델 - 최재형

짧지만 알차고 감동적인 연해주 기행을 마치고 처음 열렸던 인간개발연구원의 조찬세미나에서 김창송 회장께서 잠깐 시간을 빌려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였다. “제가 기업 활동을 40여 년간 해 오면서 마씨스다 고노스케와 이병철, 정주영 회장 등을 존경해 왔지만 이번 연해주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롤 모델을 찾았습니다. 바로 최재형이라는 고려인 기업인입니다.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나 성실성과 창의력으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고 후진 양성과 조국 독립을 위해 전 재산과 자신의 목숨을 바친 최재형이야말로 기업인의 모범이 될 만합니다.” **KBIBI**



추석맞이 고려인문화한마당 행사 피날레 장면

착한 기업이 성공한다

ISO26000시대, 흥부자본주의로 가는 길

“Your success is my responsibility’ 이타적인 것이 돈을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흥부자본주의가 ISO26000으로 구체화 되고 있고, 기업은 이것을 새로운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이 1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SR전도사’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넘어 사회구성원의 사회적 책임(SR)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대라며 ‘한국경제의 새로운 기회로서의 ISO26000’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총장은 앞으로 사회책임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꼭 지켜나가야 할 가치 가운데 하나이며, 사회 책임을 다하는 기업은 경쟁력도 높아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업이 착한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는 착한 소비를 통해 그런 상품을 구매하고, 착한 금융은 소비자들의 돈을 모아 착한 기업에 투자하는 선순환을 이루는 흥부자본주의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말이다.

한국CSR표준화포럼 회장 및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인 김 총장은 사실 지난 5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SR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해 ‘서울 의정서(Seoul Protocol)’가 되게 하려고 많은 애를 썼다. 실제 앞선 비엔나 총회에서 다음 총회의 서울 개최를 거의 결정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ISO26000 제정을 반대하면서 총회가 코펜하겐으로 넘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서울총회에서 서울의정서를 채택했다면 한국과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됐을 텐데 아쉽다며, 그나마 최근 들어 정부가 사회 책임을 강조하고 공정한 사회를 주창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현대 자본주의를 극복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세계에 내놓고 실현할 방법을 흥부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김영호 총장을 만나 ISO26000시대, 사회 책임을 위한 우리 기업과 사회의 대응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유한대학은 잘 알려진 대로 **故 유일한 박사**의 뜻에 따라 세워진 대학입니다. **총장님이 취임하신지도 7년이 지나셨는데요. 어떻게 대학에 오게 되셨는지 계기와 함께 그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총장: 저는 한국의 자본주의를 박정희·정주영·이병철 모델, 즉 '박·정·이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낳았고, 세계 12~13위의 경제대국을 만든 자본주의요. 그런 성과와 아울러 세계 최고의 반자본주의정서, 반기업정서를 낳은 자본주의이기도 합니다. 이 반자본주의정서, 반기업 정서를 극복하고 친자본주의, 친기업 정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한국 자본주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저는 그 길을 유한대학을 설립한 유일한 박사로부터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한식 자본주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과 일치해서 유한대학으로 온 거죠.

총장에 취임한 후 지난 2008년 전문대학 학사 학위 전공심화과정 인가를 받아 총 18개 학과에 430명의 입학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2년 전문학사 과정과 함께 4년 학위 과정까지 운영하게 돼 교육선택권의 확대를 꾀하게 됐죠. 더불어 2009년부터 전문대학 학장 명칭을 총장 명칭으로 바꾸었습니다.

김영호 총장은...

1940년 생으로 경북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오사카시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일본 오사카시립대, 도쿄대 교수를 지냈으며, 경북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경상대학장, 인문사회과학연구원장, 한태평양연구소장 등으로 활동했다. 중국 길림대, 베이징대 객원교수, 대구라운드 한국위원회 위원장, 산업자원부 장관,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 국제보상운동기념사업회 회장, 국제아시아공동체학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유한대학 총장으로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한국CSR표준화포럼 회장,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사진·오경근 원장



2010년도 입학식에서 김 총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외에도 로컬 체제를 글로컬 체제로 전환시켰고, 산학협력 활성화, 교직원 중심에서 학생 중심 대학으로 학교 운영체계를 전환시켰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그동안 이름만 '유한대학, 유일한대학'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 유일한식으로 바뀌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직까지 이 모든 것이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유한대학이 추구하는 'Y형 인재'는 어떤 인재를 말하는 겁니까.

김영호 총장: 기존 우리 사회는 I형 인재양성에 주력했습니다. 자기 전공 분야만 잘하는 사람이 I형 인재죠. 그런데 일본의 도요타자동차가 T형 인재를 표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T형 인재는 기초적인 교양을 튼튼히 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유한대학이 표방하는 Y형 인재는 I형과 T형 인재를 합친 겁니다. 기초 교양과 다른 학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전공 분야를 전문화하는 인재가 Y형 인재입니다. 또한 세계에 대한 넓은 시야 위에서 자기 지역, 직장에 대해 깊이 파고드는 인재를 말합니다. 요즘 말하는 서로 다른 분야를 융합하면서 자기 분야를 특화하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것이 유한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그리고 '유한'이라는 이름에서의 Y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유한대학은 2009년 평생교육원을 개원했다.

것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자는 겁니다. 나눔, 기부 등 유일한 정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형상화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걸 묶어서 5년 전부터 Y형 인재 양성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직원들의 교육에도 많은 투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김영호 총장: 교직원들의 역량이 강화돼야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교직원들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인간개발연구원에서 교육 컨설팅을 도와주셔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연구원과 함께 우리 학교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상하이 엑스포를 시찰하는 행사를 했었는데, 교수님들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10월 18일부터는 2박3일씩 2차에 걸쳐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는데요. 1차 교육을 받은 직원들이 업무에 많은 도움을 줬다며 돌아와서 연구

원 얘기를 하는 걸 들으니 저도 기분이 좋더군요.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연수 및 교육프로그램에 있어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설립자 정신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해 '유일한로 페스티벌'이 꾸준히 열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떤 행사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총장: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으로 잘 알려진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4년 4월, 유한대학 앞 도로를 부천시와 협의해 '유일한로'로 이름 붙였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기업인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취지에서 '올해의 기업인상'을 제정했죠. 당초 '유일한상'으로 계획했으나 첫 수상자가 유일한 박사로 선정되면서 이름을 바꾸게 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부에서 한국CSR표준화포럼을 만들고, 이 포럼이 국제적인 CSR 표준인 ISO26000 제정 과정에 한국 대표로 나가게 된 사연도 있습니다.

유일한로 지정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본원과 함께한 유한대학 교직원 역량강화워크샵





제7회 유일한로 페스티벌에서 김영호 총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CSR) 확산을 위해 '유일한로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14일 열린 7회 행사는 'ISO26000과 한국기업 접프의 기회'를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6여 년에 걸친 세계의 공동 노력의 결실로 CSR 국제표준인 ISO26000 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사랑받는 기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각계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총장님은 사회책임(SR) 전도사로 유명하신데요. '흥부기행'이라는 이색적인 여행을 제안하고 주도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흥부로부터 사회책임 정신을 발견한 배경 설명 좀 해주시죠.

김영호 총장: 세계는 지금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탄소경제의 한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ESSD), 사회책임(SR), 저탄소 등 새로운 개념이 힘을 얻고 있죠. 흥부기행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해서 제비가 돌아오는 철을 맞아 숨어있는 '흥부'를 찾아가는 여행으로 1997년 시작해 올해 12번째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1960~70년대 '흥부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당시는 한창 근대화, 경제성장, 자본 축적을 외치던 시대였죠. 경제발전 전에 있어 성취동기를 강조하던 근대주의의 물결 속에서 흥부전을 비판한 겁니다. 흥부는 자기 재산도 못 찾아 먹고, 책임도 못 질 아이들 마구 낳고, 신비주의적인 박에 의해서 부

자가 됐거든요. 그러니 흥부보다 놀부가 낫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근대주의를 이 끌어왔던 '박·정·이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시작됐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놀부는 졸부이고 천민자본주의의 표본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흥부를 재검증하면서 그가 사회책임의 화신이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흥부는 어려서부터 동네의 굶은 일을 도맡아 했어요. 그러니 자기 재산 찾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시민사회(NGO) 활동입니다. 나중에 놀부에게 쫓겨나서도 가족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가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매품까지 팔 정도였어요. 그리고 부자가 된 후 가장 먼저 대문을 활짝 열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줬습니다.

20세기에 인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책이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라고 합니다. 이 책 속에 가장 빛나는 구절이 '나는 장미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말인데요. 흥부는 뱀에 쫓기던 제비 새끼가 등지에서 떨어지자 갖고 있던 가장 좋은 당실을 가지고 치료해 줍니다. 이 것이야말로 제비새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행동. <어린왕자>에 나오는 가장 빛나는 구절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런 흥부야말로 제가 생각하는 사회책임 자본주의의 모델입니다.

'SR시스템'이라는 말도 만드셨는데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용어인지 궁금합니다.

김영호 총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사회책임투자(SRI), 사회책임소비(SRC), 사회책임노동(SRL), 사회책임교육(SRS), 그리고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 및 조직에 대해 세계 혜택을 주거나 우선적으로 조달하는 사회책임정부(SRG) 등을 연결해 'SR시스템'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과거, 제가 정부에 있을 때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NT(나노기술), ET(환경기술), CT(문화기술)을 묶어서 5T라고 하고, 'T브라더스가 한국을 구할 것'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 'SR 브라더스'라고 했더니 어떤 여성분이 이번에는 브라더스라고 하지 말고 시스템으로 하자고 해서 'SR시스템'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흥부는 착한 일을 해서 결국 득을 봤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과 신화적인 요소가 개입된 거죠. 하지만 시스템으로 만들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SR시스템이 잘 연계된 것이 SR시스템이고, 이게 시장경제에서의 SR자본주의입니다. 이걸 제가 흥부에 빗대서 흥부자본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착한 일을 하면 돈을 번다는 게 '흥부자본주의' 논리인데요. 이게 현실적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김영호 총장: 유일한 박사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네 머리로 남의 행복을 설계하라." 바로 이 말에 희망이 있습니다. 산자부 장관 시절에 외국 기업에서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들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위해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시장을 먹으러 왔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Your success is my business'라는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당연히 그런 기업을 환영하고 적극 지원하게 되겠죠.

이제 이타적인 것이 돈 버는 시대가 왔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아탈리는 그의 저서 <21세기의 역사>에서 21세기는 이타적인 사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이걸 기업 입장에서 보면 21세기는 사회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돈을 버는 시대라는 말이 됩니다. 돈 버는 데만 집중하는 회사는 경쟁력을 잃고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자와 소비자, 지역주민과 금융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을 만족시키는 사회책임 기업이 돈도 더 잘 벌 수 있게 됩니다.



김영호 총장과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사회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Your success is my responsibility’, 우리 학교 학생들의 성공은 총장인 저와 교직원들의 책임이죠. 지자체의 경우 그 지역 기업의 성공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ISO26000)’이 최종 국제표준으로 확정되면서 우리 사회도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ISO26000을 기회라기보다는 장애요소로 여기는 인식이 강한 것 같은데요?

김영호 총장: 사회적 책임 국제표준인 ISO26000이 지난 5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사회적 책임(SR) 총회에서 최종국제표준으로 확정되면서 11월 1일부터 전 세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로써 기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만 이용한다면 우리는 동남풍의 봄바람을 타게 될 겁니다. 물론 잘못하면 우리 경제에 서북풍의 겨울바람을 몰고 오겠죠. 호랑이 등에 올라타 세계 시장을 누빌 수도 있고 호랑이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ISO26000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나 경제단체들이 이것을 한국무역의 장벽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잘못이죠. 한 경제단체에서 ‘새로운 무역 장벽으로써의 ISO26000’이라는 보고서를 썼는데, 일본에서는 같은 형식의 보고서 제목이 ‘새로운 무역의 찬스로써의 ISO26000’입니다. 이

를 장애요소로 보는 게 아니라 기회로 인식 한다는 겁니다.

일본 소니의 경우도 삼성보다 기술력은 좀 뒤 떨어지지만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평가를 높게 받아서 떨어지는 기술력을 만회하고 활용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 삼성이 기술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가운데 ISO26000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경쟁력도 강화하고 기업 이미지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한국 기업들은 ISO26000을 기업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ISO26000은 인증제가 아닌 검증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들이 CSR리포트 내거나 검증제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김영호 총장: 앞으로 ISO26000이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ISO가 인증제였지만 ISO26000은 검증제이기 때문입니다. 언뜻 보면 인증제보다 약한 것 같지만 여기에 무서움이 숨어있어요. 검증은 사회적 평판과 시장의 평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얼마 전 도요타자동차 사태를 보면서 소비자의 검증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소비자들의 검증에 실패하면 설 땅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세계의 소비자, 세계의 NGO, 세계의 노동자의 평가에 기업의 운명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ISO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금액의 돈만 주면 가능했는데, CSR리पोर्ट를

내려면 인증 비용의 10배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중소기업들에게 있어 CSR 리포트는 무리라는 얘기가 되죠. 때문에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가지고 더욱 적극적으로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5월, 한·일 강제병합 100주년을 맞아 양국의 지식인들이 한일 병합조약은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공동선언의 의의와 함께 이후 실천 과정은 어떻습니까.

김영호 총장: 한·일간 역사 인식에 있어 중요한 것은 ‘과거는 덮어두자. 현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과거를 덮어 두자는 건 과거사를 합리화시키자는 얘긴데, 이견 안 되죠. 백 투 더 퓨처(Back to the Future), 과거로 가서 그 지점에서 미래를 보는 것, 과거와 미래를 통합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일 과거사 문제의 핵심은 한·일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불법이고 무효였다는데 있습니다. 군대를 이용해 강제로 현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조약을 합법화시키는 일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이죠. 일본이 한·일 병합조약을 합법화시키면 식민통치가 합법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불법 독립운동을 한 게 됩니다.

과거 제국주의의 옷을 벗지 않으면 일본은 결코 존경받는 선진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겉만 보지 말고 핵심으로 들어가야 일본과 한국, 일본과 아시아의 역사적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또 역사적 화해가 선행돼야 동아시아공동체 실현도 가능해집니다.

이 문제에 있어 또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는데, 바로 중국의 패권주의입니다. ‘중국의 아시아화’가 아니라 ‘아시아의 중국화’라는 그림자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중국 패권주의의 그림자를 막기 위해서는 일본 패권주의의 유산을 깨끗이 청산해야 한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1910년에 체결된 한·일 병합 조약의 원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양국의 지식인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 방면에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닌 역사학자들이 대부분인데, 사회의 주류계층이 한·일 병합조약은 무효라는 내용에 합의하고 선언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역사학자들이 현실 정치를 변화시킬 수 있었는가?'라는 반문도 있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상류사회, 주류가 바뀌면 하류가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했어요. 이런 노력을 지식인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나 국회가 이런 결의 하나를 못 만든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언론에서도 '일본이 그런 일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퇴로를 만들어 주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들 스스로의 마음을 집결시키지 못하는 가운데, 고맙게도 중국의 역사학자 400명이 이 문제에 지지성명을 발표해줬고, 동남아의 지식인들도 지지성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정열을 쏟아 붓고 계셔서 그런지 늘 건강해 보이십니다.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김영호 총장: 4년 전에 뇌졸중으로 한 번 쓰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뒤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 5~6km씩 걷고 뛰고를 반복합니다. 그 덕분인지 그 때의 후유증이 일부 남아있긴 하지만 쓰러지기 전보다 혈압도 낮아지고 오히려 기초체력은 더 좋아졌습니다.

총장님께서 저희 연구원 활동에 관심을 갖고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에 대한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총장: 저는 일본에서 오랜 세월 생활했어요. 사실 조찬문화는 한국보다 일본이 먼저죠. 그런데 지금은 한국의 조찬문화가 훨씬 더 활발합니다. 한국의 조찬문화는 한국발 한류의 한 형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조찬문화가 한국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어

요. 그리고 그런 조찬문화를 만드는데 인간계 발연구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조찬문화를 어떻게 이노베이션 할 것인가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난 35년의 역사에 더해 100년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일이 될 겁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柳—韓博士의 生活 哲學

“정성껏 좋은 商品을 만들어 국가와 동포에게 奉仕하고 正直하고 성실한 人材를 양성하여 사회에 배출하며, 企業에서 얻은 이익은 첫째, 企業을 키워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둘째, 성실하게 納稅하며 셋째, 그리고 남은 것은 企業을 키워준 社會에 환원한다.”

이 말은 유일한박사의 企業理念이자 生活哲學으로 평생 동안 몸소 실천 하셨으며, 柳韓 精神의 바탕이 되었다.

柳韓의 ‘柳’는 유일한박사의 姓이며, ‘韓’은 韓國을 표시하는 뜻으로, 이 두 글자를 합한 ‘柳韓’은 韓國과 韓民族에 대한 柳博士의 깊은 헌신의 情을 상징한다.

유일한박사는 祖國愛의 정열로 민족기업 柳韓洋行을 창립하고, 人材양성을 위하여 柳韓學園을 설립하셨다.

이처럼 나라와 겨레에 대한 奉仕로 일관한 柳—韓博士의 숭고한 정신은 柳韓의 企業理念을 통하여 구현되고, 柳韓學園에서 배출되는 人材들의 가슴속에 심어져 영원히 빛나리라.



지난 5월, 한·일 지식인 1,000여 명이 한·일 병합조약은 무효라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제5회 찾아가는 CEO교실

음악이 흐르는
황금빛 들판,
강진 영동농장

본원은 지난 9월 10~11일, 1박 2일간 김용복 영동농장 명예회장의 특별 초청으로 회원 30명과 함께 전남 강진 영동농장을 비롯해 다산초당 등을 둘러보는 '제5회 찾아가는 CEO교실' 행사를 가졌다. 강진만을 사이에 두고 드넓게 펼쳐진 간척지에 일군 황금들판에서 김 회장의 한과 훈이 담긴 인생역정을 들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던 이번 일정을 함께 따라가 본다.

- 편집자 주

강진으로 향하는 아침, 전날부터 내린 비는 그칠 줄 모르는 가운데 오랜만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가을여행에 나선 일행들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밝았다. 서울을 벗어나 얼마쯤 달렸을까? 하늘은 약속이나 한 듯 맑게 개인 모습으로 화답했다. 곧이어 장만기 본원 회장의 사회로 '찾아가는 CEO교실'의 명물이 된 '달리는 공부방'이 시작되었다. 수십 년 경영현장의 이야기부터 삶의 일상으로부터 쏟아지는 이야기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들을 수 없는 지식과 지혜의 향연들이었다.

예향 목포의 자연사박물관

이번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는 목포다. 12시를 넘겨 목포에 도착하자 가장 먼저 정종득 목포시장이 일행을 맞았다. 정 시장이 준비한 오찬을 함께 하고 목포자연사박물관으로 이동했다. 목포자연사박물관은 지구 46억년의 자연사와 지역문화예술사를 망라한 곳이다. 특히 문예역사관을 마련해 예향 목포의 문화예술세계를 엿볼 수 있었다.



1 정종득 목포시장의 환영사
2 정종득 시장과 함께 한 목포자연사박물관



남도답사 일 번지, 다산초당

오후 4시를 넘기며 강진으로 향하는 일행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남도답사 일번지로 불리는 전남 강진의 다산초당에 이르는 길로 일행은 백련사에서 이어지는 동백나무 산길을 택했다. 이곳은 조선 후기 유교와 불교를 아울렀던 애암 혜정선사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오가며 교분을 나눴다는 산길로 야생차 군락과 동백나무 숲이 장관을 이루고 있다. 동암 바로 앞쪽으로 남쪽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자리에 위치한 천일각을 뒤로 하고 다산초당에서 맘을 식히며 기념사진을 찍은 일행은 이번 일정의 최종 목적지인 영동농장으로 향하기 위해 하산했다.

1 백련사에서 다산초당에 이르는 길의 야생차군락지
2 유배생활 후반부 10년간 많은 업적을 남긴 다산초당에서



1 영동농장에 도착해 기념촬영하는 회원들
 2 김용복 회장이 올해 첫 수확한 햅쌀을 건네고 있다.
 3 인사말씀 전하는 김용복 회장
 4 만찬장에 참석해 인사말 전하는 황주홍 강진군수
 5 김용복 회장이 마련한 만찬장에서



김용복 회장의 한과 훈이 서린 영동농장

버스가 영동농장 근처에 이르자 오경배 농장장이 일행을 맞으며 농장에 대한 설명을 했다. “영동농장은 개인 자격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장이고, 배수와 펌프 시설 등 인프라를 완벽하게 갖춘 전천후농장이며, 미생물농법 등 생명공학에 의해 운영되는 첨단농장이자 한 방울의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장입니다.” 매년 약 1만 2천 석의 쌀이 생산되는 영동농장에는 식량자급을 예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김용복 회장의 한과 훈이 담겨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영동농장에 도착하자 농장 입구 바위에 새겨진 문구가 무척이나 인상적이다. “그래도 농자(農者)는 천하지대본(天下之大本)이다.” “그래도”라는 말 속에 김용복 회장의 농업에 대한 열정, 결코 농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집념과 개척정신, 농업에 거는 희망이 서려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영동농장은 오전 7~8시 사이에는 감미로운 모차르트 음악이 흐르고, 오후 1~2시 사이에는 신명나는 풍물 가락이 울려 퍼진다. 이 음악농법은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는 동시에 벗잎이 웃자라는 걸 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김 회장은 “바로 어제 올해 첫 햅쌀을 수확했다”며 일행들에게 올 농사의 첫물을 선물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1934년 가난한 농부의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나는 가난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는 고향을 떠나면서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하나는 국내 최고의 땅 부자가 되는 것, 또 하나는 장학사업을 통해 가난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라며 자신의 인생역경 스토리를 이어갔다.

고향을 떠난 김 회장은 우여곡절 끝에 단돈 7달러를 들고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고, 열사의 땅에서 김치 장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사막에서 무와 배추를 재배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김 회장은 계속된 실패에 희망을 잃은 직원들이 반란을 일으키자 '삼자루 리더십'을 발휘해 역경을 극복했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결국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不狂不及)'는 그의 도전정신이 사우디 사막에 새싹을 틔우던 날 김 회장과 직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이후 농장은 사우디의 명물이 되었고, 4농장까지 확장을 이어갔다. 그리고 1983년 고향 강진의 간척지 100만 평을 사들이고 초현대식 농장을 만들었다. 농장을 건설하고는 바로 필생의 꿈이었던 장학사업을 시작해 용복장학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200여 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100억 원의 재산을 들여 만든 한사랑농촌문화재단 역시 그의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의 하나였다. 쌀농사, 사람농사, 사랑농사를 짓고자 한 김 회장 평생의 꿈이 실현된 것이다.

농장 주변으로 땅기미가 내려앉으면서 일행은 김 회장이 준비한 만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남도의 맛과 멋이 어우러진 식사 자리에 황주홍 강진군수가 참석해 '영동농장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김 회장의 업적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1 강진청자박물관에서



시인의 숨결 느껴지는 영랑생가

11일 아침, 우려했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일정을 건너뛸 수는 없었다. 일행은 가벼운 아침 식사 후 영랑생가를 찾았다. '영랑 현구문학관'에서 영랑의 시와 삶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며 감상에 젖어들었고, 생가로 자리를 옮겨 문화유산해설사의 해설을 통해 생가 곳곳에 숨겨진 영랑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다.

강진청자박물관에 들린 일행은 강진청자의 우수성과 가치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강진 청자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는 강진청자축제가 전국 1200여 개의 축제 가운데에서도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는 해설사의 설명에 일행 모두가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전라병영성 바로 옆에 위치한 하멜기념관이였다. 2007년 문을 연 하멜기념관은 350여 년 전 제주도에 표류한 네덜란드 선원 하멜이 13년 동안 제주도, 강진, 여수 등을 오가며 머무른 기간 중 전라병영성에 배속되어 만 7년간 고된 노역에 종사한 역사와 함께 당시 국내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곳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 다시 시작된 '달리는 공부방' 시간에 회원들은 이번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 보고 각자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가졌다. 10시간 이상의 오고 가는 시간 동안 한 번도 내려놓지 않은 마이크, '10년 넘게 운전을 했지만 이렇게 열정적인 분들은 처음 본다'는 버스기사의 한 마디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

제6회 찾아가는 CEO교실

세계최초
통합의학센터
미래형병원,
차움(CHAUM)
“진시황제도 못 누려본
신개념 의료서비스”

우리나라 대체의학의 최고권위자인 전세일 원장을 모시고 제1662회(9월 16일) 경영자 연구회에서 인간의 자연수명에 이르기 위한 건강경영법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를 인연으로 백문불여일견(百聞不如一見)이라고 본원 회원 30여 명이 지난 10월 9일, 찾아가는 CEO교실 여섯 번째 시간으로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차움(CHAUM)을 방문하였다.

차움은 차병원의 ‘차(CHA)’에 공간을 뜻하는 라틴어 ‘스타디움(STADIUM)’의 ‘움(UM)’이 합쳐져 ‘건강에 관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공간’을 의미한다. 차움은 양·한방 전문의와 스파, 푸드, 운동 분야의 전문가 그룹이 연계해 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시설과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제작한 로고, 인테리어 조명 등을 갖추고 있어 특급호텔 수준을 자랑한다.

검진은 프리미엄검진센터에서 진행된다.

국가 원수나 국왕이 병원에 왔다고 가정해 보자. 국왕에게 어떻게 차트를 들고 여기 와라, 저기 가라 할 수 있겠는가. 차움은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검진시스템을 만들었다. 모든 검사는 ‘Hive’라고 적힌 검진실, 일명 ‘셀(Cell)’에서 이뤄지며, 차트를 들고 기다릴 일이 없다.

전세일 명예원장은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은 대한민국 경제사에 많은 기여를 했고,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가졌기에 사회의 골드 에이지(Gold Age)로서 의료뿐만 아니라 문화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공존하는 ‘차움’에서 편하게 즐기며 더욱 건강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예**



1 전세일 원장이 '차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 3 건강검진실(Hive) 및 안티에이징 솔루션



여섯 번째 찾아가는 CEO교실로 10월 9일 '차움'을 방문했다.

남북통일과 '융합외교'

한·일 강제합방 100년과 함께 찾아온 금년은 무기력하게 나라를 빼앗겼던 과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함께 통일을 향한 각오를 다지는 해가 되어야 한다. 36년간 계속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번영된 민족국가가 아니라 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이었다.

한·일 강제합방과 6.25 전쟁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강대국들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준 대표적 사례들이다. “역사는 아무 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다만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들을 처벌할 뿐이다”라는 러시아 학자의 유명한 경구(警句)가 있다. 국가의 멸망이나 분단, 전쟁과 같은 비극의 역사를 통해서도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처벌받는 자는 바로 우리 자신이 되고 말 것이다.

한반도 문제 해결책은 통일

6.25 전쟁 이후 지난 외교사상 최초로 개최된 한-미 외교·국방장관 합동회의와 사상 최대 규모로 진행된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한·미동맹 강화라는 빛도 가져왔지만 북한은 물론 북한 감싸기에 나선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그림자도 가져왔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대립의 객체가 되어온 불행한 역사를 가진 우리는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남북대립 등 동북아시아의 대결구도를 남북 협력에 기초한 평화구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더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 될 수밖에 없다.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는 당사자인 남과 북이 주체가 되어 풀어나가야 하지만, 현재 남북관계는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인해 극도로 경색되어 있다. 중국과 러시아, 특히 중국이 북한을 향한 거의 유일한 대화창구로 남아있다.

우리 외교의 활로는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 간의 관계를 상쟁(相爭)이 아니라 상생(相生)으로 전환시키는 데서 찾아야 한다. 2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 간 대립이 격화되면 우리의 외교공간이 극도로 축소되며, 남북통일도 물 건너 갈 것이기 때문이다. 통일을 위해서는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간 경쟁과 대립이라는 기존의 틀을 뛰어 넘어야 한다.

융합외교로 대륙세력과 해양세력 상생 이끌어야

우리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통일을 달성한 독일의 예를 보자. 1870년과 1990년 두 차례의 독일 통일은 국력 증강과 함께 유리한 국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루어 낼 수 있었다.



● 정태익 전 대사

1943년 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제2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무부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등을 거쳐 駐이집트 대사, 駐이탈리아 대사, 駐러시아 대사를 지냈으며, 외교안보연구원 원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등의 요직을 거쳤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법무법인 율촌 고문, 한국석유공사 사회 의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1870년 분열된 독일을 하나로 묶어낸 철혈재상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k)는 프랑스, 러시아, 오스트리아 등을 상대로 고차원의 중층외교와 함께 군사력을 적절히 사용하였다. 1990년 동·서독을 통일한 콜(Helmut Kohl) 총리는 유럽통합을 주도해 나가는 동시에 소련(蘇聯)의 약체화라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였다.

독일통일은 지도자의 통찰력, 국력 증강, 중층외교, 지역통합, 국민통합 등이 통일의 필수적 요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의 부상(浮上)과 북한의 불안정 및 일본의 대한국접근 적극화 등 동북아시아 정세의 코페르니쿠스적 변화가 예견되는 상황 속에서 현상유지(status quo)의 지속은 남북 분단의 영구화와 북한의 대중의존(對中依存) 심화 등 우리 민족의 쇠락을 가져올 뿐이다.

융합기술이 만들어 낸 스마트폰이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았듯이 남북통일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담대한(audacious) 융합외교를 통해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의 행동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정된 동북아 질서를 만들어 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시아 공동체 형성이라는 소프트웨어와 두만강 삼각주와 연해주 개발, 한·중 및 한·러 철도연결, 한·일 해저터널과 베링해 해저터널 건설 등 하드웨어를 융합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외교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일을 향한 의지와 함께 통찰력을 갖춘 지도자의 출현을 대망(大望)한다.

21세기의 벽두에 선 대한민국에게 있어 역사적 경험의 정수(精髓)인 통일은 민주, 자유투쟁의 결정체인 헌법정신에 따라야 한다. 러시아의 문호(文豪) 톨스토이는 <참회록>에서 “인간은 소중한 무엇인가를 믿기 때문에 살아간다”고 결론지었다.

헌법은 자유·민주·평화 통일이 우리가 이룩하고 지켜 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다. 자유민주통일이 우리의 목표이며, 융합외교는 이를 위한 수단이고,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의지는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자 철학이다.

통일을 향한 목표와 수단, 철학이 융합되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역사의 수레바퀴를 새로 돌릴 때 우리의 목표인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KHDI**

왕밤이 나를 가르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 내외의 강원도 횡성 농장에 아내와 함께 지난 주말 밤을 주우러 갔다가 하룻밤 묵고 돌아왔다. 이 농장은 산 속 깊숙이 숨은 듯 자리 잡고 있지만 확 트인 전망은 시원하다. 집 앞뜰 하양, 노랑, 연분홍, 빨강 등 온갖 색깔의 활짝 핀 코스모스 숲 속에 서서 산 넘어 멀리 보이는 치악산 봉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장관이었다.

‘왕밤’ 크기 재기

집에 돌아와 친구 부부가 우리에게 선물로 준 밤 하나가 어떻게나 큰지 전남 영암에서만 볼 수 있다는 그 희귀한 호두 생각도 나고, 오래오래 보관하고 싶은 충동도 느낀다. 나는 이 밤을 ‘왕밤’이라 부르기로 했다. 또 오래 보존하겠다고 아내와 함께 껍질질을 에나멜로 받았다. ‘도토리 키 재기’ 소리는 들었어도 ‘왕밤 크기 재기’는 아직까지 들어본 적도 없지만 그 집 밤나무 밑에서 이 왕밤처럼 큰 밤을 우리도 행여나 주웠는지 호기심도 생기고 해서, 아내와 함께 우리가 몸소 주워 모은 한 섬이 넘는 밤 자루를 열어 놓고, 큰 밤들만을 먼저 열두어 개 대충대충 골랐다.

다시 이들 가운데 큰 것부터 그 순위를 매기려다 나는 혼자서 깜짝 놀랐다. 선물로 받은 네모난 이 ‘왕밤’이 하도 커서 우리가 모은 그 어느 것도 감히 견주기조차 우스꽝스러울 정도가 아닌가? 과연 어느 것이 두 번째로 크고 좋고 예쁜가를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지만 끝내 가려내지 못했다. 상대적으로 좀 크다 싶어 골라 놓고 보면 껍질 쪽에 까만 점이 있거나 상처자국이 있다. 어떤 것은 꽤 큼지막하지만 밑동 한 구석이 살짝 망가졌거나 모양새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실은 이 왕밤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흔히 우리가 보는 밤처럼 둥그스름하게 세모나지 않고, 네모난 박스처럼 생긴 것이 균형이 잘 잡히지 않고 안정감이 없어 아쉽다.

물론 요즘은 모든 과일을 기계로 크기, 무게, 품질을 기준으로 쉽게 빠르게 골라낸다. 하지만 밤이든 감이든 과일을 앞에 쏟아놓고 내 눈, 내 손으로 첫째, 둘째, 최고, 최상의 것을 골라 보라고 하면 어렵다는 얘기가다.

겉만 보고 평가하는 성급함

선물로 받은 ‘왕밤’ 다음으로 좋은 밤 하나 고를 수 없는 내 무능력을 발견하고 나서, 아니 이 자연과 삶의 새로운 현실을 터득하고 나서 문득 이런 생각도 해본다. 하다못해 밤을 1등, 2등 고르기도 힘든데 하물며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흠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구인가? 오직 신만이 완전무결, 전지전능한 존재 아닌가?

대체로 사람의 평가란 장님 코끼리 만지듯 그 사람의 어느 한 순간 한 상황에서 한 단면만을 보는 것이 고작이다. 그것도 평가하는 잣대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도 그 잣대도 문자 그대로 천차만별(千差萬別), 천층만층 천만층(千層萬層, 千萬層)이 아닌가?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우리 속담도 바로 이런 판단의 어려움을 뜻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다시 생각하니 이 왕밤도 그 속은 아직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 아닌가? 만약 밤의 속살 맛이 가장 중요하다면, 나는 아직 이 왕밤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 왕밤의 속살이 만에 하나 썩었다거나 맛이 덜하면 어찌 할까? 이 밤의 겉을 훼손하기 전에는 그 속을 알 길이 없지 않은가? 내가 이 큰 밤의 속살을 들여다보거나 맛도 못 본채 겉만 보고 만지며, ‘왕밤’이라고 이름붙인 것부터가 성급한 판단일까?



●양성철 교수

1939년 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캔터키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80년대 중반까지 미국 캔터키대, 인디애나대 등에서 교수 생활을 했으며, 귀국 후 서울대, 경희대 교수로 활동했다.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제18대 주미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처럼 밤을 제대로 고르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지 않는가? 어느 한 사람의 온전한, 완전무결한 평가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종합평가', '심층분석', '포괄적 평가'라 해도 평가자가 만든 기준과 잣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넘지 못한다. 끝내는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 받는 사람이나 '불완전한 인간' 아닌가?

침닝쿨처럼 뺏어가는 수상(隨想)

요즘 우리나라 국무총리나 장관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어떤가? 겉으로 보기에는 학벌, 학력, 경력이 번지르르하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 같지만 실제로 속을 들여다보면 썩은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올바르지도 못한 '자격미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물론 총리나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성인군자를 뽑는 행위는 아니라 하더라도, 도덕성이나 청렴도에서 우리나라 성인 남녀 평균도 못 되는 사람들이 버젓이 총리나 장관 후보라고 얼굴을 내미는 꼬락서니가 솔직히 눈살을 찌푸리게 하지 않는가?

우리의 북녘 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어떤가? 문자 그대로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김일성의 손자요,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을 사실상 북한 최고권력 후계자로 '결정'함으로써 '김일성 왕가' 3대 후계 작업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정치 희곡, '김일성 왕가' 3막 1장이 진행 중이다. 김일성은 10년 남짓 항일빨치산 게릴라 전투 체험에다, 일제로부터 조국해방 전에도 '장군' 칭호로 불리기도 했다지만 '칭호'가 아닌 북 인민군 '대장' 계급을 군 경력도 경험도 없는 20대 '애송이' 김정은에게 하루아침에 주고, '청년 대장'이라고 부르니 어이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군 조직이든 대장 계급은 '골목대장'은 아니지 않는가? 오죽하면 며칠 전 사망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김정은을 '그깟 놈'이라고 폄하했을까?

왕조시대의 세습제도 하에서 세자책봉이라면 몰라도 21세기 전자시대, 多우주 세상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2대 세습도 북녘 밖에서 보면 웃음거리였지만, 3대 세습 기도는 이제 북한 주민 비극의 시작은 아닌지? 한 치 앞도 보기 힘들만큼 북한 정정(政情)이 불확실하고 답답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북한의 애타는 속사정은 물론 안팎의 정세도 훨씬 복잡하고 복합적이다. 더구나 쉽게 가볍게 웃음거리,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있을 만큼 우리와 무관하지도 무관할 수도 없다.

북한의 속사정과 한국의 정치, 경제 현황을 포함해 우리 주변 안팎의 재빠르게 움직이는 정세변화와 미, 중, 일, 러, EU 등 경제, 안보전략 각축과 갈등을 냉철하게 심층분석을 했을 때만이 시대역행적인 북한 3대 권력세습 기도의 해답도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다 왕밤 이야기가 침닝쿨처럼 북한 3대 세습으로까지 뺏어나갔는지 나도 모르겠다. 원래 수상(隨想)이란 생각나는 대로 흘러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칭따오(靑島)의 셋별

행사장 입구에는 내빈들로 웅성거리고 있었다. 마치 서울의 어느 부잣집 혼례식장 같았다. 기다란 붉은 리본이 달린 화환이 싱싱한 향을 풍기며 좌우로 나란히 서서 내빈을 맞아가 하면 바이올린의 은은한 선율이 이 밤을 잔잔히 열어가고 있었다.

일행과 함께 접수대에 다가서니 방명록은 없고, 처음 보는 영상방명록에 사인을 하란다. 마치 외국 공항 입국장에서 사진 찍듯이 작은 렌즈를 바라보니 화면 가득히 내 얼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처음 보는 장치였다. 어느덧 중국의 방명록은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었다.

그 때 기다렸다는 듯 오늘의 주인공

공 윤영상 회장의 사모님이 화사한 미소로 나의 손을 잡으며 귀빈이라고 쓰여진 붉은 리본의 꽃을 손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듯 아내의 내조가 있었기에 오늘의 영광이 주어진 것이리라.

VIP 귀빈실에 안내되니 벌써 청도시의 정부 측 관리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일일이 그들과 수인사하며 명함을 나누었다. 산둥성 지역 최고의 관리들은 다 초대된 듯했다. 식당 정면에는 'DASAN 창립 20주년 기념'이라고 한중 양국어로 크게 쓰여 있었다.

중간 헤드테이블에 안내된 우리는 자기 이름표를 찾는데 다소 혼란스러웠다. 처음 보는 운동장 같

은 대형 원탁 테이블 위에 놓인 이름표가 너무도 작았기 때문이다. 겨우 제자리를 찾아 앉으면서 세어보니 남녀 통역까지 모두 23명이었다.

넓은 테이블 한복판은 마치 어린이 놀이터 같이 넓었다. 4m의 직경은 넉넉히 더 되어 보이는 그 넓은 둥근 상판에는 청도의 바다가 그려져 있고, 다섯 척의 하얀 돛단배 모형이 군데군데 떠있는가 하면 앞면에는 'DASAN'이라고 하얀 조개로 수놓아 있었다.

우리는 그 설치 미술에 혼을 잃었다. 둘러앉은 우리들은 상대방과의 대화는커녕 이 색다른 발상에서 마음의 풍요로움을 읽을 수가 있었다.



1 윤영상 다산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청도다산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VIP들



청도다산 20주년 기념식이
10월 22일 중국 청도에서 열렸다.

산동성 당서기를 비롯하여 청도 부시장, 무역촉진회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한국 측은 운영상 회장을 비롯하여 칭다오 주중 총영사, 정부혁신추진위원장,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그리고 나도 함께 참석했다.

이날의 최고위 관리는 청도시 당서기였다. 우람한 체구에 건장한 모습은 소박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감이 넘쳤다. 더욱이 이 밤에는 어디 농촌 현지 지도라도 하다가 온 듯 잊지고리는 벗고 와이셔츠 차림에 연신 담배만 피워 대고 있었다. 옆에 앉은 윤 회장과는 어찌면 그 털털하고 소탈함이 엇비슷해 보였다.

청도 다산(茶山)은 1990년에 액세서리 제조를 목적으로 창업하여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업문화를 창조하여 세계 패션계를 리드할 것이라는 내용의 영상홍보물이 뜨고 있었다. 지난 1978년에 한국에서 창업된 이래 33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한다.

다소 상기된 모습의 윤 회장은 감회가 깊은 듯 인사말을 하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은 듯 했다. 지난 창업 시의 아픈 세월을 회고하

면 목이 뻐 것이다. 처음 이곳에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만류하며 아내마저 잠을 못 이루던 일이 어제 같았는데, 이렇게 20년 세월동안 만난 (萬難)을 극복하며 성장하여 칭다오의 한복판에 우뚝 섰으니 그의 감회를 누군들 알 것인가.

나는 지난 10주년 창립기념 때도 여기에 와서 공장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더욱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할 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빌려 동네잔치를 하던 모습이 아스라이 떠올랐다. 이번에도 또 다시 그 자리를 유심히 가슴에 새기면서 그의 통 큰 경영현장을 보며 새삼 존경이 갔다.

공장 여공들이 수만 가지 액세서리 고리를 일일이 손으로 이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간밤의 전야제로 사내 축제가 화려함을 확인했지만 이 밤 역시 어느 음악회 못지않게 종업원들의 노래와 춤 숨씨가 녹녹치 않았다. 한결같이 창업자의 소탈한 마음씨에 정이 들어 이렇게 20년이나 함께 일한다고 어느 조선족 종업원은 기탄없이 이야기한다.

윤 회장은 저 멀리 저기를 가르치며 넓은 갈대밭 수만 평은 이미 확



보했고, 5천 평 새 공장은 올해 안에 가동 할 것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베트남 등 해외에도 공장 부지를 이미 확보해 놓고 있었다. 장학금 전달 등이 끝나고 지역 사회와 노사가 하나 되어 축제의 밤은 깊어만 가고 있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16대손답게 그는 선비정신이 물씬 풍기는 보기 드문 근대 경영자이다. “가마타고 가는 기쁨보다 가마매고 가는 아픔을 기억하라”는 다산의 그 짧은 교훈을 다시 한 번 새겨 본다.

오늘의 운영상 회장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중국 땅에서도 많은 일자리 창출에 본을 보이는 말뿐만이 아닌 가슴으로 경영하는 우리의 표상이 되는 숨은 경영자였다. 꿈은 꾸는 자만의 것이라고 했다. 그의 내일의 꿈이 크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김재민**



● 김상송 회장

1928년 생으로 고려대 경영대학원 졸업 및 중앙대 경영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1968년 성원교역을 창업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수입업협회 초대연수원장, 부회장 및 고문으로 있으며, 아시아기독실업인회 이사장, 한국기독실업인회 회장 등으로 활동했다. 수필산책문학회 부회장, 한국수필문학진흥회 이사 등 수필가로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강사소식]

■ 한국 안의 작은 프랑스 문화마을, **쁘띠프랑스(회장 한홍섭)**는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살아있는 프랑스의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제1회 프랑스 영화축제를 개최하였다. 프랑스 대사관과 프랑스 문화원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경기도, 가평군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영화 축제에서는 연인, 친구,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감동의 프랑스 영화 14편이 상영되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한국메세나협회가 지원하고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이 후원하는 기업과 예술의 아름다운 만남 제8회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0월 2일 파주 헤이리마을에 위치한 마살아트센터에서 열렸다. 연주회에 앞서 김상래 사장은 회사 소유의 '공간퍼플'에서 리셉션 시간을 갖고 참석자들과 기업메세나 활동에 관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 **대한노인회(회장 이십)**는 9월 30일, 제14회 노인의 날 및 대한노인회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 회장은 “앞으로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시대에 노인들이 경쟁력을 갖춰 고령화시대를 맞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노인의 상(像)을 재정립하여 ‘안방 퇴물’에서 ‘사회를 책임지는 새로운 노인’으로 변신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노인회는 16개 시도에 연합회가 있고 시군구에 245개 지회를 두고 있으며, 260만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 **김황식 국무총리(전 제21대 감사원장)**는 9월 1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제41대 국무총리에 취임하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지난 1624회 경영자연구회에서 강연해주신 바 있으며, 주식회사 장성군수로 잘 알려져 있다. 김황식 군수의 동생이다.



■ **(주)다산회장 운영상**은 올해로 중국법인 청도다산인조수식유한공사의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0월 22일, 중국 청양구 홀리데이인호텔에서 20주년 창립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본원 소모임인 차이나클럽 주최 하에 한중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장만기 회장, 김창송 성원교역(주) 회장, 조창현 전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등 10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 **‘2010 부산국제섬유패션전시회(BITFAS 2010)’**가 10월 14~16일까지 부산 BEXCO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축제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개최하여 많은 관람객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또한 본원 회원사인 **성신신소재(회장 임병문)**가 ‘국제첨신발기능경진대회’에 참가했으며, 자사 제품인 토앤토(Taw&Toe) 브랜드 제품 ‘휴먼 컴포트 슈즈 토앤토(Human Comfort Shoes Taw&Toe)’가 사업성 부문 1등상을 수상하였다.



■ **조인스HR(대표이사 이재산)**은 11월 2일, 섬유센터 17층 스카이홀에서 2010년 추계세미나 “한국형 경력개발 어디로 가야 하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형 경력개발 모델의 좌표제시를 위한 이슈와 과제를 점검하고, 대기업 공기업 선진 외국기업의 경력개발 운영사례를 통해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과 개인의 경력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 글로벌 명품퍼터인 **글리프스(대표 박준서)**가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입학하면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골프쇼와 문화 퍼포먼스를 마련해 관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10월 16~17일, 양일간 신세계백화점 명품관에서 글리프스 전체 모델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와, 룽퍼팅대회, 전통공예작품 전시회, 성악가의 작은 음악회, 골프신동 홍서연의 골프묘기, 퍼팅실력 향상을 위한 컴퓨터 퍼팅분석 서비스, 다과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함께 하는 런칭쇼로 진행되었다.

■ **정이안 정이안한의원 원장**은 국악FM방송에서 방송인 오정해씨가 진행하는 '오정해의 창호에 드린 햇살' (7시-9시)에 아래와 같이 고정출연한다.

- 출연일시 : 매주 목요일 아침 8시 20분 ~ 8시 45분
- 출연코너 :生生건강백서코너 - 한의사 정이안이 제안하는 컬러푸드와 건강한 생활

■ **가정문화원(이사장 두상달)** 두상달·김영숙 신바람 부부강사는 함께하는 웃음과 감동, 그리고 용서와 치유가 있는 사랑의 옹광로 '부부행복학교'를 개최한다. 11월 5~6일 이틀간 한강호텔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문의는 가정문화원(02-561-7942)으로 하면 된다.

■ 욕실용품업체 **세비앙의 류인식 대표**는 10월 15일 경기도 광주 본사에서 원룸전용 욕실 시스템 '올인'을 공개하였다. '올인'은 샤워기, 수납공간, 세면대를 하나의 몸체로 설계한 제품으로 공간을 적게 차지하면서 기능을 극대화해 원룸 사용자도 편안한 샤워를 즐길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다.

■ **롯데호텔서울(대표이사 좌상봉)**은 세계적인 관광업전문지인 'TTG'가 발표한 '2010년 TTG 트래블 어워드'에서 '서울 최고의 호텔'로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 9월 세계적인 비즈니스 여행전문잡지인 '비즈니스 트래블러(Business Traveller)'로부터 '2010년 서울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선정된 것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 **한미파슨스(회장 김종훈)**는 '장애인그룹홈 리모델링' 첫 사업인 관악1공동체 리모델링을 마치고 10월 26일 준공식을 가졌다. 한미파슨스는 직원 600여 명이 매달 월급의 1%를 떼어 사회공헌활동 자금으로 쓰고 있다.

■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10월 27일 하나로마트 40주년을 기념해 이재관 전무이사, 이덕수 농업경제 대표이사, 김종광 하나로마트 선도조합 협의회 회장 및 조합장,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가졌다.

■ 화장실 문화운동을 위해 일생을 헌신한 **故 심재덕** 선생의 유지를 계승하는 **(사)미스터토일렛 심재덕 기념사업회**가 지난 9월 15일 수원시체육회관에서 창립총회를 열었다. 기념사업회는 향후 미스터토일렛 심재덕 추모사업, 해우재 등 화장실문화전시관 시설유지관리 수탁사업, 화장



실문화 관련 사회공헌사업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故 심재덕** 선생은 민선 1, 2기 수원시장 시절부터 아름다운 화장실 운동을 전개했으며, 17대 국회의원 시절에는 한국화장실협회 창립, 회장을 역임하고 이어서 세계화장실협회 창립을 주도한 뒤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며 화장실 문화운동을 세계에 전파했다. 한편 유족이 기증한 번기모양 사택 '해우재(解憂齋)'는 화장실 문화전시관으로 리모델링해 지난달 30일 고인의 흉상 제막식과 함께 개관했다.

■ **(사)세계미술문화진흥협회(이사장 강석진)**는 G20 정상회의 참여국가 간의 문화교류 증진을 위해 11월 8일부터 14일까지 G20 회원국가의 화가 100여명이 함께 하는 'G20 World Artist Festival'을 개최한다. 협회 측은 한국이 주최하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국제 간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가 함께하는 한국의 새로운 이미지를 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G20 국제미술교류가 한국미술의 세계화에 소중한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일정 : 2010년 11월 8일 ~ 11월 14일
- 개막식 초대 : 2010년 11월 8일 오후5시
- 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1가 25. 한국프레스센터 1층 전시관 전관
- 문의 : 월드아티스트페스티벌 운영위원회 사무국
T.02-722-4913 / C.P. 010-8797-0908(Curator)

■ **이승한 홈플러스그룹 회장**은 9월 6일 우리나라 환경경영을 선도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포상 '국민훈장(동백장)'을 받았다.

■ 대한적십자사(총재 유종하는 **인요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에 대해 북한 동포를 위한 인도적 지원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적십자인도장 은장'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 **JTI재능교육(대표이사 양병무)**은 2007년과 2008년 연속 선정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2010 한국서비스품질지수' 학습지부문 1위에 선정되었다.

■ **생활환경 위생기업 세스코(회장 전순표)**는 세스코 멤버스 존을 일반 가정집까지 확대, 강화해 '세스코 홈 멤버스 존'을 론칭하였다.

■ **(주)에프앤디파트너(대표이사 유재용)**는 10월 14일 서울 메리어트호텔에서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주최로 열린 제11회 한국프랜차이즈대상 시상식에서 중소기업청창상상을 수상하였다.

■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협약인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에 가입하였다. UNGC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발족한 국제협약이다.

■ **IBK기업은행(행장 윤용로)**은 저금리 시대에 기업의 자금관리를 돕는 '기업성금 복리통장'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정기적금과 예금 2종류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적금의 경우 납입액 기준 5000만 원까지, 예금은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각각 최고 3년까지 연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1년제 기준 적금 연 3.0%, 예금 연 2.8%다.



■ **유한킴벌리(사장 최규복)**는 11월 중순부터 기저귀, 화장지 등 일부 생필품을 정상이 대비 15~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기로 했다. 아기 기저귀 2종, 화장지 1종, 생리대 6종 등 유한킴벌리 인기제품이 포함되었으며, 겹포장에 '물가안정 가격인하제품'이라고 표기돼 일반 제품과 구별된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해당 품목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상

을 가격 인하 제품으로 구성하고, 기저귀와 생리대는 6개월, 화장지는 3개월간 공급할 계획"이라며 "해당 생필품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제품으로 골랐고, 장기간 다량 공급해 생색내기가 아니라 물가안정에 실제로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613회 조찬세미나에서 강연을 해주신 **서희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는 최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는 클래식 아크경영서 <클래식 경영콘서트>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MBC 드라마 '베토벤 바이러스' 예술감독이자 김연아 아이스쇼 쇼트프로그램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저자는 "예술에 관심 많은 CEO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며, 특히 최고경영자일수록 클래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고 말하며, 클래식과 경영을 접목한 클래식 아트경영의 진수를 보여준다. 새로운 경영 코드를 찾는 CEO는 물론 조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장 및 부서장에게 딱딱한 리더십이 아닌 클래식과 오케스트라를 통한 부드럽고 예술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도와준다.



■ **(주)리사이트(대표이사 부회장 이종원)**

는 가슴속 짙은 향기를 발산하여 우리네 마음속 풍요와 즐거움을 전해주는 한국유명작가와 함께 롯데백화점 31주년을 기념하여 무한한 창조와 소통의 마음을 함께 하고자 "향기를 발하다"展을 마련하였다. 전시회 일정은 아래와 같다.



- 전시명 : 롯데백화점 31주년 창립기념기획이벤트전시 '향기를 발하다'전
- 전시기간 : 2010년 11월 4일(목) - 14일(일)
- 전시장소 : 롯데 본점 8층 중앙 에스컬레이터
- 전시주최 : (주)리사이트
- 전시후원 : 롯데백화점
- 참여작가 : 총 10여 명의 15점 미술작품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양종관 남서울대학교 교수**의 자녀 양지호군의 결혼식이 11월 6일 롯데 호텔에서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한홍섭 뷔띠프랑스 회장**의 장남 한웅군의 결혼식이 10월 31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신규회원]

1. 법인회원

■ 나현 서울특별시의회사회나현 회장

- 전화 : 02-2676-9754 / 팩스 : 02-2676-7881
- 주소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99
- 홈페이지 : www.sma.or.kr



■ 문종금 (사)대한삼보연맹 회장

- 전화 : 02-598-5226 / 팩스 : 02-598-5202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2-16 성지하이츠II 1003호
- 홈페이지 : www.koreasambo.com



■ 박봉규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 전화 : 070-8895-7011
- 주소 : 서울 구로구 구로동 188-5 키콕스벤처센터
- 홈페이지 : www.kicox.or.kr
- ※ 참여임원 : 이장우 부이사장, 민봉준 개발지원본부장, 백철규 수도권광역본부장, 윤종언 산업입지연구소장



2. 세미나 회원

■ 김석문 신일필글라스 대표이사

- 전 화 : 02-419-4211 / 팩스 : 02-419-4215
- 주 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55-13번지
- 홈페이지 : www.shinilglas.co.kr
- 추천인 : 정문호 동국산업 부회장, 이재욱 중앙에프앤에스(주) 대표이사



3. 개인회원

■ 장승웅 경도화학공업(주) 회장

- 전 화 : 031-491-0181 / 팩스 : 031-491-0689
- 주 소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87-1
- 홈페이지 : www.gdchem.co.kr

■ 안재석 헨리안파트너십 대표이사

- 전화 : 02-6677-3410 / 팩스 : 02-6677-3411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수서타워 908
- 홈페이지 : <http://www.henryanpartnership.com>



■ 김석현 대신원대학원 부총장



■ 여우석 유니버그룹 회장

- 전화 : 02-552-7111 / 팩스 : 02-552-7722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2-12 반석빌딩 2층
- 업태업종 : 주택건설, 건설시행사



■ 김영진 김영진성형외과 원장

- 전화 : 02-548-1588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85-13 재경빌딩 3F
- 홈페이지 : <http://www.youngforever.co.kr/>
- 추천인 : 박이락 (주)성한트랜스텍 대표이사



■ 김성오 미고의원 원장

- 전화 : 02-2215-5078
- 팩스 : 02-2217-7025
- 주소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35-6 장안상가 205호
- 추천인 : 권기식 인간개발연구원 원장



[소모임소식]

■ **이종기업동우회1그룹(회장 신용웅 / 총무 고지석)** 제279차 모임은 아래와 같이 1박2일로 태안반도에서 야외 모임을 가집니다.

- 일자: 11월 2일~3일 (1박2일)
- 장소: 태안반도 (골프포함)
- 참석여부: 고지석 사무사사무소 김성철 (02-598-3747)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 11월 모임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1월 17일(수)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로얄호텔 21층 스카이라운지 VIP룸
[서울 중구 명동1가 6번지, Tel. 02-756-1112]
- 참석통보: 총무 홍승국 (H.P. 010-5305-3378)

■ **인목회(회장 방기봉 / 총무 차진영)** 11월 모임은 한종덕 회원의 주선으로 '한국가곡의 밤' 음악회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번 행사는 '우리 가곡의 날' 제정 6주년 기념 및 국제로타리3650지구 결식아동돕기 기금마련 음악회로 인목회 회원뿐 아니라 연구원 회원들의 참여도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2010년 11월 11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광화문 브레넨코 (TEL. 02-532-4018)
[광화문5호선 지하2층 1번 또는 8번출구 이용]
- 참가비: 3만 원
- 문의: 경영자교육팀 정성숙 과장 (070-8670-8434)

■ **YCF(회장 정이안 / 총무 김진욱)** 10월 모임은 정이안 원장이 쉐라톤 워커히의 레스토랑 'Clock 16'과 'the view' 에서 color food 런치, 디너 코스를 프로모션하여 정이안 원장과 함께 웰빙건강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color food 코스를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11월 모임에서는 성공한 증권맨에서 오페라의 매력에 중독되어 오페라 해설자로 변신한 유형중 무지크바움 대표를 모시고 최고의 영상물과 유쾌한 해설로 오페라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 일시: 2010년 11월 25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저녁식사 후 무지크바움 (강남구 신사동)
- 참석통보: 정성숙 과장 (010-7139-7265)

■ **M.S클럽(회장 전순표 / 총무 차송일)** 모임이 'CEO 미디어스피치 과정' 1기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M.S클럽은 미디어 스피치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과 수료자 간의 친목을 다지는 활동을 전개하면서, 향후 과정 수료자들을 회원으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M.S클럽의 M.S는 Media Speech의 약자입니다.

- 대상: CEO 미디어스피치 과정 수료자
- 일시: 12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매달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 장소: 추후 안내
- 임원: 회장 - 전순표 세스코 회장
총무 - 차송일 한경아카데미브랜드전략연구소 소장
- 문의: 민선아 과장 (Tel. 02-445-1948)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송 / 총무 이계옥)** 10월 모임은 지난 2일, 경기창조학교 방문 및 파주 헤이리마을에서 열린 제8회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참석하는 야외나들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창조학교 이청승 사무총장과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 사무총장은 멘터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초의 디지털그형 학교인 경기창조학교 현황을 소개하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후에는 자리를 옮겨 이 사무총장이 펴낸 (두 개의 르네상스)를 주제로 출판동기와 글쓰기에 관한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개해 에세이클럽 모임의 의의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미니강연 후에는 회원들 간의 토론타이 이어졌으며, 각자 짧은 발표시간을 갖고 의견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마침 에세이클럽이 방문한 날은 경기창조학교 1기 멘티 입교식이 열리는 날이라 이여령 명예교장의 "창조를 위한 이종 격투기-디지털그 시대를 사는 법"이라는 강연이 준비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상 입교식만 참관한 후 일행은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관람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헤이리심포니오케스트라

트라는 (주)성도GL(사장 김상래)의 후원으로 매년 열리고 있으며, 김상래 사장이 주최하는 리셉션이 '공간퍼플'에서 이어졌습니다.

10월 모임은 자연과 예술의 만남 속에서 '낮설게 하기', '낮설게 보기'를 통한 문화탐방의 기회를 가진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9월 모임은 13일, 손광성 수필가를 모신 가운데, 수필수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1월 모임은 8일 문학의집 서울에서 회원들의 글을 품평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일시: 2010년 11월 8일(월) 오후 6시
- 장소: 문학의집 서울 산림문화관 2층
- 문의: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창립기념일]

■ (주)신성월드	권오범 사장	11월 1일
■ (주)그린라이퍼	김광탁 대표이사/회장	11월 1일
■ (주)세원	김병춘 회장	11월 2일
■ (주)비츠로테크	장순상 회장	11월 8일
■ (주)덕성	이해성 사장	11월 10일
■ 유림물산	안성일 회장	11월 13일
■ (주)코리아나화장품	유상옥 회장	11월 15일
■ (주)주택문화사	이심 회장	11월 18일
■ 에스엔케이폴리텍(주)	송재문 회장	11월 19일
■ 파르나스호텔	김동헌 대표이사	11월 22일
■ 로터스힐	최만식 회장	11월 26일
■ UCS Asset Consulting	김미라 대표세무사	11월 27일
■ 서울도시가스(주)	배경운 회장	11월 28일
■ (주)세스코	전순표 회장	12월 1일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호현 원장	12월 3일
■ 원근건설	한익섭 회장	12월 7일
■ 중원콘텍(주)	김만용 사장	12월 10일
■ 천일식품(주)	전석규 대표이사	12월 14일
■ 신명인터내셔널(주)	최해규 회장	12월 15일
■ (주)리-사이트	이중원 대표이사	12월 16일
■ (주)성도GL	김상래 사장	12월 17일
■ 예성화랑	한영희 대표	12월 17일
■ 원풍물산(주)	이원기 회장	12월 20일
■ 바리의꿈	황광석 대표이사	12월 28일

[연구원 소식]



■ IPCC 의장 초청 CEO 조찬 특별강연

지난 10월 15일,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IPCC 라젠드라 파차우리 (Rajendra K. Pachauri) 의장 초청 CEO 조찬 특별세미나는 환경부와 기상청이 주최하고 인간개발연구원과 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하였습니다. 본 강연에서 파차우리 의장은 "기후변화는 점점 더 지구에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좋아질 가능성은 없고, 만약 세계 3차대전이 일어난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이 원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 2010 인경회배 추계 친선골프대회

회원 및 가족들을 모시고 건강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계 친선골프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아울러 대회와 관련해 후원(기부금, 협찬품)을 받고 있으며, 귀중한 후원금 및 협찬품에 대해서는 엄선하여 후원자명 및 후원사 명칭으로 시상 또는 홍보해 드리오니 많은 후원과 참가를 바랍니다.

- 일시: 11월 10일(수) 오후 12시 30분
- 장소: 곤지암 그린힐 C.C
- 주관: 인간개발연구원 골프클럽 인경회
- 인원: 선착순 40명
- 문의: 경영자교육팀 정성숙 과장 (070-8670-8434)

회원의 경조사나 활동사항 또는 귀사의 주요행사, 신제품 출시, 기타 변경사항 등을 알려주시면 회원소식지 및 <좋은사람 좋은세상>에 게재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식 및 원고: 정용달 팀장 dal2020@khdi.or.kr

홈페이지: www.khdi.or.kr

전화: 02-2203-3500 / 팩스: 02-2203-1974

자기개발과 조직의 경쟁력 향상의 디딤돌

2010년 9~10월, 전국적으로 207회 강연 열려

〈교육컨설팅소식〉

■ 지방자치아카데미, 55개 지역에서 168회 강연



21세기 지방화시대에 자치단체의 미래는 공공기관의 행정혁신과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를 전제로 한다. 본원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치단체 발전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공직자와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대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지난 9~10월 동안 55개 지역에서 168회 강연을 실시하였다. 주요강연으로는 거제시에 임형규 삼성전자 상담역, 부여군청에 이연오 부산발전연구원장, 서울 영등포구청에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청양군청에 이상구 한국생명운동본부 박사, 정선군청에 전순표 세스코 회장, 경주시청에 손욱 서울대 초빙교수 등이 다녀오셨다.

■ 기업·공공기관에서 33회 교육

기업 정기교육에서는 전문 가구기업 리바트에서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와 공병호 공병호경영연구소장의 강연이 있었다. YPP디지털은 최윤규 넥스트리인터넷 대표가 창의력 강연을 진행했고,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에서는 방우정 전국이벤트MC협회 대표가 월레트강을 개최하였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우정사업본부에 서희태 베토벤바이올리스 음악감독과 김홍신 작가가 강연에 나섰고, JDC와 함께하는 제주



글로벌아카데미에 신상훈 작가와 성우 배한성씨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섰다. 한편 경북도립대학, 동국대 경주캠퍼스와 함께 대학생 출신장려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수 선과 방송인 이익선씨를 초청해 행복한 가정, 일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워크숍 진행으로 문경시립노인전문간호센터 전 직원 38명을 대상으로 10월 22~23일 문경새재유스호스텔에서 직원연수를 양일간 개최하였다. 김수지 서울사이버대 협력총장은 사람돌봄의 이론과 실제로 간호계의 대모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표경흠 웰핼 대표는 사회복지재단으로서의 미션 그리고 비전과 전략에 대해 큰 그림을 그려주었다. 이외에도 웃음치료와 미술치료를 통한 센터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치유와 함께 실버세대를 위한 치료의 기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유한대학은 10월 18~20일, 25~27일 2박3일 2차수로 양평 한화리조트에서 50여 명의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역량강화교육을 개최하였다. 김승래 창조경영아카데미 부소장이 브랜드마케팅과 스토리텔링을 주제로, 이익용 중앙대 겸임교수가 대학환경의 변화와 말이 통하는 대학조직을 주제로, 신상훈 방송작가가 창의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소통의 기술을 강연하였고, 조직활성화 파트에서는 웃음세미나와 애니어그램 아트테라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 병영선진화를 위한 아카데미 6회 개최

군부대의 지식과 학습공간 창조를 위한 문화지식병영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선진육군아카데미와 공군 하늘사랑아카데미가 지난 9~10월 두 달 동안 총 6회가



진행됐다.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공군 10, 15, 16비행단을 비롯해 공군군수사령부, 육군본부 등에서 병과 간부들의 학습 열기는 뜨거웠다. 이번 아카데미에는 송대성 세종안보연구소장, 최염순 카네기연구소장, 이종인 원호사 주지스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연사로 나섰다. 한편 공군본부는 대령급 관리자들의 개인역량강화와 조직활성화 방안을 위한 '성과창출 집중역량 심화교육'을 10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한 달간 매주 수요일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컨설팅기관소식〉

■ 울산·김천(구미) 11월 1일, KTX 개통

경부선 KTX 울산 및 김천(구미)역이 11월 1일 개통한다. 개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KTX 울산역은 평일 46회, 주말 53회가 정차하며, 서울까지의 요금은 평일 4만 6300원, 주말 4만 9500원이다. KTX 완공으로 울산에서 동대구까지는 24분, 서울까지는 2시간 5분이 소요된다. KTX 김천(구미)역 역시 11월 1일 운영을 시작하며 평일 36회, 주말 44회 정차할 예정이다. 김천(구미)역에서 서울까지는 1시간 20분, 부산까지는 1시간 5분이 소요될 예정이다.



■ 2010 서울평생학습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2010 서울평생학습축제가 “평생학습! 나만의 울림에서 모두의 두드림으로”라는 주제로 7개 평생학습도시, 300여 개 평생교육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주최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가 공동주관으로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열렸다. 본원과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진행하는 서울 강서구는 이번 축제에 ‘겨매 정선이 숨쉬는 전통의 향기, 평생학습도시 강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참여해 홍보체험관 운영, 우수동아리 발표, 우수작품 전시, 우수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 경상북도, 2010 행정산업정보박람회 개최

경상북도는 ‘꿈과 희망, 일자리’가 있는 경북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21개 시군과 함께 10월 14일 개막한 2010 행정산업정보박람회에 참가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대구경북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산하기관 등 40개 기관단체가 참가해 주요 정책을 알리고 특산물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경북도는 △일자리 22만 개, 투자유치 20조 원 △강산해 경북 재창조 프로젝트 △미래형 원자력 과학산업벨트 조성 △영남권 신국제공항 밀양 유치 등 경북의 성장판을 채울 주요 전략 프로젝트를 소개하였다.



■ 곤충산업의 메카로 떠오른 예천군

경북 예천군은 이제 ‘양공의 고장’이라는 말보다 ‘곤충의 메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1997년 꽃가루 매개 곤충으로 키우기 시작한 머리뿔가위벌을 전국적으로 보급하면서 서서히 곤충의 고장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작년 6월에는 꿀벌육종연구센터를 건립, 우수한 중봉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장수풍뎅이나 사슴벌레 등 애완곤충과 흰점박이꽃무지(곰뽕) 같은 약용곤충 사육에도 힘쓰고 있다. 흰점박이꽃무지의 경우 작년 7월 ‘예천뽕곰뽕’이라는 이름의 상표등록이 완료돼 향후 식품으로 개발될 경우 상당한 소득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군, 병영선진 아카데미 5주년. 아카데미에서 학습조직으로



군부대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사회적 트렌드 인식과 창조적 발전 전환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은 병영선진화 아카데미가 올해로 5주년을 맞이했다. 그간 병영아카데미는 정재계, 문화예술계의 명사들이 초청되어 경제, 경영, 안보 뿐 아니라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발전되어 왔다. 또한 학습이라는 아카데미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군과 민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병영선진 아카데미는 때로는 뜨거운 학습 열기로 때로는 미소와 잔잔한 감동으로 머리가 숙연해지는 분위기를 연출하며 5년의 시간을 보냈다. 군과 민간의 지식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은 병영선진 아카데미는 앞으로 아카데미를 뛰어 넘어 학습조직으로 변화해야 할 기로에 섰다. 고도의 훈련과 직업정신을 요구하는 군의 특성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업무과정에 다양한 능력과 형태로 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 또한 지식경영을 비롯해 학습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창출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효율적 업무능력 배양에 매진해야 한다.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1기 개강

‘예수의 섬김리더십’을 경영현장에 접목하는 한국 최초의 교육의 장(場)이 될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hristian Leaders Academy, CLA)’ 제1기 과정이 성황리에 문을 열었다. 지난 10월 12일, 리츠칼튼호텔 금강홀에서 열린 개강식에는 국내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석해 영성의 시대 지혜의 혁명시대에 크리스천 CEO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CLA 제1기 과정에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 정몽준 국회의원, 이인제 국회의원, 조경근 한국세무사회 회장, 박세환 재향군인회 회장, 광영훈 사람과환경그룹 회장, 김창송 성원교역 회장, 김광석 참존 회장, 이중기 동보중공업 회장, 서영제 전 대전고검장, 엄기영 전 MBC 사장, 송진태 세계선교총연맹연합 총재 등 교계 및 정·관·재계의 크리스천 리더 85명이 참여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개강예배에서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라는 설교를 통해 “이제 사회지도층 크리스천들이 개인의 발전은 물론 우리 사회와 국가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여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 1 환영사를 하고 있는 정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 2 개강강연에 나선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
- 3 85명의 크리스천 리더들이 참여한 가운데 CLA 1기가 개강했다.
- 4 입학선서를 하고 있는 CLA 1기 참가자들
- 5 개강인사 하고 있는 이재천 CBS 사장





- 1 개강예배를 인도하는 김삼환 목사
- 2 복음가수 최인혁의 식전 공연
- 3 식전 공연을 펼친 CBS여성합창단
- 4 2주차 강연에 나선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 5 2주차 강연에 나선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 위원장



개강강연에 나선 송자 명지학원 이사장은 '예수의 섬김리더십'이라는 주제강연에서 "경영자는 벌고 저축하고 나누어주는 삶 속에서 가장 먼저 고객을 섬기고, 종업원, 지역사회, 투자자를 섬길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완전한 CEO는 예수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개강강연 후에는 향후 CLA 과정을 이끌어 갈 회장단을 선출해 조용근 한국세무사협회 회장을 1기 회장으로 추대하고, 4개의 자치모임을 결성해 그룹토론 및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인간개발연구원과 기독교방송(CBS)이 공동으로 개설한 CLA 1기는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저녁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조순 전 경제부총리,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조동성 서울대 교수 등 국내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심도 깊은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만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크리스천 CEO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CLA 과정은 단순한 지식교육 위주에서 탈피해 21세기 들어 경영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예수의 섬김 리더십' 함양에 주안점을 두고 영성체현, 국내의 선교봉사, 찾아가는 CEO 강의, 문화와 나눔실천 등 다양한 내용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아**



앞서가는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스피치전략이 있다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수료

봄은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개발연구원의 주최로 9월 7일 개강해 총 5주 과정으로 진행된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이 지난 10월 12일 수료식을 갖고 1기 과정을 마쳤다. 15명의 참가자들은 매주 화요일 일상의 무거운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즐거운 배움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자금은 미디어 스피치의 시대

CEO들은 미디어나 공식석상에 설 기회가 많다. 미디어 시대, CEO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공들여 쌓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미디어 스피치다. 이번 교육 과정을 기획한 봄은 커뮤니케이션의 성연미 대표는 "단순히 우리가 말을 하는 것 외에도 시각적, 음성적 언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 할 수 있다"고 전한다.

참가자들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발성연습법과 호흡법 등을 배웠고, 'CEO의 삶과 경영'이라는 테마로 생방송 실습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와 경영현장에서 일어난 에피소드를 솔직담백하게 털어놓아 감동의 시간을 연출했다.

기업의 경영과 CEO의 스피치

첫 시간에는 CEO가 기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 이야기를 할 때 긍정, 겸손, 그리고 배려하는 언어를 통해 타인의 신뢰를 얻는 방법을 배웠다. 이어서 참가자들의 삶속에 녹아 있는 이야기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유머를 통해 딱딱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 위기대처와 시사스피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 1 10월 12일 수료식 모습
- 2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진행한 성연미 대표
- 3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단체사진





1 실습에 앞서 분장을 하는 전순표 세스코 회장
2 3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참가자들
4 CEO 미디어 스피치 1기 수업 모습

과정의 마지막 시간에는 가족과 직원에게 보내는 영상메시지를 만들었다. 참가자들은 평소에 표현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진심을 담아 말했고, 훌륭한 CEO는 가족과 직원들의 사랑과 믿음 없이 혼자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임을 느낄 수 있었다.

과정 뒤풀이 시간에는 '건배사 스피치'를 배워보는 시간도 가졌는데, 1기 회장을 맡은 세스코의 전순표 회장은 "오늘도 (좋은날) 내일도 (좋은날) 영원히 (좋은날)"이라는 건배사로 모든 참가자들의 앞날을 축복하기도 했다.

MS클럽 발족, 2기 3기로 열기 이어갈 것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은 꾸준한 관심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과정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미디어 스피치 클럽(MS클럽)'을 만들어 정기적인 연습과 친목의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그 출발로 MS클럽은 11월 중 골프모임을 갖는다.

본 과정은 다양한 주제로 생방송 같은 방송실습 녹화와 피드백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진정한 미디어 스피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2기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이 운영되며, 2011년에는 3기 과정도 계획되어 있다. **케이에**

3기 CEO 미디어 스피치 과정 안내 앞서가는 CEO에게는 뭔가 특별한 스피치전략이 있다

- 일시 : 2011년 1월 24일 ~ 2월 21일
매주 월요일 오후 3시~6시
- 장소 : 봄온커뮤니케이션
- 문의 : 경영자 교육팀 민선아 과장
(Tel. 02-445-1948)
봄온커뮤니케이션 기획팀 박요환
(Tel. 02-706-5144)

■ 스피치에 기쁨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번 미디어 스피치 과정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여 보다 훌륭한 스피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주)세스코 회장 전순표

■ 지금은 말 한마디, 말하는 방법이 더욱 중요한 때입니다. 이 과정이 놀라운 것은 매 수업마다 바뀌어가는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침 다음 주에 있을 언론인터뷰에서 요긴하기 쓰이겠습니다. 감히 모든 CEO의 필수과목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천일식품 대표이사 천석규

■ 스피치 교육 파이팅! 금번 교육으로 인하여 스피치의 원론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성연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봄온 커뮤니케이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중앙에프앤에스 대표이사 이재욱

■ 난생 처음 경험이었지만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누구 앞에서 스피치 할 때 이 순간을 떠올리며 모양을 갖추려 노력합니다.



- 한국파마 회장 박재돈

■ 미디어 스피치를 통해 스피치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서 너무도 제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모든 CEO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스피치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한경브랜드전략연구소 소장 차승일

■ 늘 언어에 대하여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노력해오던 차 미디어 스피치 교육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성 대표님의 열정에 감사합니다.



- 성아테크 사장 정해돈

■ 짧은 기간에 종합 스피치 요령을 다양한 강사로 하여 금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여 배울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습니다. 말할 때마다 그냥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신원대학교 부총장 김석현

■ 이미 많은 것을 얻어서 가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봄 온 덕분에 스피치 하는데 자신감을 갖고 떠납니다.



- 세종고등학교 이사장 최승욱

■ 스피치 교육 참 좋은 교육이네요. 저한테 가장 필요한 과정이네요.



- 뽕피프랑스 회장 한흥섭

내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법

경주시청(시장 최양식)과 본원이 2010년 9월 15일 개설한 '화백포럼'은 급변하는 시대에 공직자와 시민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정보, 소양함양을 통해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인적자원 육성을 목적으로 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화백포럼'은 앞으로 다양하고 전문적인 강연을 통해 21세기 무한경쟁의 시대적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기혁신 및 자기개발로 조직발전에 기여하는 열린교육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지난 9월 29일, "내 자녀를 글로벌 리더로 만드는 법"을 주제로 제2회 강연을 해주신 이혁병 회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 이혁병 회장

1953년 생으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78년 대우그룹에 입사해 자동차수출 및 그룹 전략기획팀에서 근무했다. (주)한국신용평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캐리어아시아본부에서 사업담당 이사로 활동하고 LG 캐리어 대표이사를 역임한 후 (주)캡스로 자리를 옮겨 현재 ADT캡스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만능 스포츠맨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포츠 활동을 경영에 접목한 '플레이경영'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들어 세계화라는 말이 화두가 되고 있다. 사실 세계화는 서울보다 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방강연을 가보면 다문화 가정에서 오신 분들을 많다. 20~30년 후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이 우리의 주요 교역국이 될 것이다. 지금은 가난한 개발도상국이지만 잠재력이 큰 시장들이다. 그 때가 되면 현지에 친척들이 있고 그 나라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인재로 주목받을 것이다.

세계화 감각을 키워라

세계화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언젠가 강연을 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다수 참석하셨다. 그분들께 세계화는 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할 수 있다고 했다. 강의를 끝나고 할머니 세 분이 오셔서 영어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계화를 하냐고 물으셨다. 그분들께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배낭여행을 한 번 해보라고 했다. 영어 몇 마디면 되고, 어디나 사람 사는 곳이니 손짓 발짓이면 다 통할 거라고 용기를 드렸다. 그 후 할머니들은 스스로 여행계획을 짜고 6개월간 영어과외를 받아서 진짜 배낭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가이드도 없이 가고 싶은 곳, 보고

싶은 곳을 보며 즐거운 여행을 하고 오셨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말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게 하려면 어렸을 때부터 자질을 키워줘야 한다. 광범위한 독서와 함께 가능한 여러 나라를 여행할 기회를 가지면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세계의 친구들도 사귀면서 어느 나라에 가서도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요즘의 트렌드다.

훌륭한 멘토와 두려움 없는 도전정신

1978년 직장생활을 시작해 32년이 지났다. 평범한 직장생활로 시작해 CEO 자리까지 왔으니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몇 가지 원동력이 있다. 첫째는 훌륭한 멘토를 두었다는 것이다. 1978년 입사한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이 내 첫 번째 멘토다. 김우중 회장은 맨손으로 시작해 10여 년 만에 삼성, 현대, LG와 어깨를 겨루는 그룹을 일구었다. 그 분으로부터 불가능은 없다는 자신감, 일에 대한 열정, 창업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이현재 전 부총리도 소중한 멘토다. 대우그룹에서부터 모셨고, 한국신용평가 초대 사장으로 가실 때 비서실장으로 모시게 되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에 대한 균형감각이 뛰어나고 현실감각, 타이밍을 강조하는 분이다. 특히 회의시간에 문제에 대한 대안을 물어보고 답을 못하면 불호령을 내리셨다. 덕분에 크고 작은 문제점을 제기할 때마다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좋은 습관을 갖게 되었다.

캐리어에서 일할 때 회사인 유니이티드 테크놀로지그룹의 아시아태평양 사장도 내 멘토다. 그는 전략가이기도 하지만 디테일이 강한 사람이었다. 숲과 나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룹 내에서 프리젠테이션을 가장 잘 하기로 유명했는데, 한 번의 프리젠테이션을 위해 밤을 새는 일은 다반사였다. 완벽한 자료임에도 만족하지 않고 밤을 새고 고치고 보조 자료를 챙겼다. 13년간 보스로 모신 덕분에 나도 프리젠테이션 실력이 많이 늘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을 시작하는 때이다. 그러나 나는 낯선 곳에 가는 걸 주저하지 않는다. 대우그룹에서 수출업무 7년간 했고, 한국신용평가에서 금융자본시장 일을 5년간 했다. 싱가포르 캐리어 아시아본사에서는 인수합병을 했고, 한국에 들어와 LG캐리어 대표를 2년간 했다. 그리고 옮긴 자리가 ADT였다. 사실 캐리어에 있었다면 은퇴까지 안정된 직장이었겠지만 낙관적이고 호기심이 많은 나는 새로운 것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내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경영

은 결국 성과를 내는 것이다. 경쟁사와 차별화된 제품서비스를 내놓으면 결국 경쟁사보다 앞서게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이 문제 해결의 돌파구

낯선 곳을 찾아다니며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은 경영뿐만 아니라 삶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학창시절 공부만 했던 사람보다 운동도 열심히, 연애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했던 사람이 사회생활에서 더 많은 실력을 발휘한다. 경영을 하다보면 핵심 문제점의 실마리를 의외의 부분에서 찾는 경우도 있다. 2002년 3월 2일, ADT캡스에 처음 부임하던 날 아시아 사장이 나를 본사 대회의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30명의 간부들에게 나를 소개하는 자리였는데, 전혀 환영하는 기색이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회의적이고 불안함이 가득했다.

당시 캡스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 노조 가입율이 80%를 넘었고, 내가 취임하고 2개월 뒤에는 총파업까지 벌여 1천 명이 넘는 노조원들이 본사에 모여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노조는 파업 첫날 경영진이 항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24시간 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안기업에서 파업이 일어났으니 견디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일주일을 버텼다. 파업 첫날 퇴근하려는 간부들을 설득해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일

주일을 버틴 것이다. 결국 노조도 신입사장이 1주일을 버티자 자진해산을 결정했다. 그러나 그 후로도 크고 작은 농성이 산발적으로 이어졌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건장한 노조원 3명이 나를 둘러싸고 무언의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와 나의 장래가 없다는 생각으로 원칙대로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결국 몇 달이 지난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밤을 새운 끝에 경영진이 원하는 결론으로 타결에 이르렀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파업을 하는 동안 노조원과 비노조원간의 대립이 심했다. 더욱이 캡스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강해 선배간의 비난으로 인한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 고민 끝에 평소 즐기던 스포츠에서 실마리를 찾았다.

젊은 직원들은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는 교육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서 1박 이상의 교육은 무조건 반나절은 야외 팀빌딩을 하도록 정했다. 5월에서 9월까지의 수상스포츠를 즐기고,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스노우 보드도 탄다. 봄가을에는 승마를 즐긴다. 물론 수상스키나 바나나보트 타기를 꺼려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먼저 시범을 보이는데, 그러면 직원들도 모두 동참한다.

캡스만의 교육이 8년 정도 지나니 직원들 간의 친밀도가 높아지고 상하 간 대화가 되면서 장벽도 허물어져 소통의 조직문화가 형성되

었다. 그 이후로는 노조파업도 없고 노조 가입율도 1%에 그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노사 협력 우수기업상을 수상했다. 지난 6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목표율을 초과달성하고, 수익성도 10%에서 20%로 상승했다. 지난 3년간 전 세계 금융위기로 모두가 어렵고, 경쟁사들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

얼마 전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한 명은 거의 모든 과목에 A+학점을 받았고, 다른 한 명은 성적이 좋지 못했다. 왜 성적이 나쁘냐고 물었더니 춤, 노래, 연극 등 다른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성적이 좋지 못하다면서, 대신 뽑아주면 뭐든 잘 할 수 있다고 했다. 웬지 그 친구를 뽑으면 잘 할 것 같은 생각에 모험이라 생각하고 합격시켰다.

그런데 회사 체육대회에서 이 친구가 응원단장으로 나와서 전 직원들을 정말 즐겁게 만들었다. 회사 파티에서는 춤과 노래로 전 직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이런 친구가 고객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회사는 좀처럼 혼자 일하는 곳이 아니다. 동료들을 설득해야 할 때도 있고, 고객사에 가서 경쟁사와 피 말리는 경쟁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말할 기회가 많지 않다. 집안에서도 자녀들이 떠들면 무조건 제지하고 어른들에게 말대꾸 하면 야단부터 치며 소통을 차단한다. 결국 어렸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자연스럽게 풍부하게 표현할 기회가 막히는 것이다. 반면 서양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피치 교육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도록 놓아둔다.

다양성도 중요한 덕목이다. 보안업계에서 통상 경호팀장은 남자들이 맡지만 우리는 2년 전에 한국 최초로 여성 경호팀장을 임명했다. 처음 캡스에 부임했을 때 여직원의 가장 높은 직급이 대리였다. 그 이후로 여성인력을 많이

뽑고 꾸준히 기회를 준 덕분에 지금은 재무담당 부사장이 여성이다. 임원급 본부장 두 명도 여성이다. 팀장도 여러 명이 있다.

신구 세대 간의 다양성에 의한 갈등도 결국 교육으로 해결했다. 먼저 간부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판단에 1년에 2~3회 2박3일 일정의 워크숍을 진행한다. 내용은 노는 것이다. 한 번은 유니버설발레단을 찾아가 3시간 실습을 하고 팀을 나누어 강연대회를 했다. 댄스도 배우는데 3년 전에는 '탈미댄스', 2년 전에는 '노바디', 지난 2월에는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시건방춤을 배웠다. 1인당 최신곡 두 곡을 마스터해서 노래방에 모이라는 미션도 준다.

젊은이들의 감각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임원 30명과 신입사원 30명을 짝지어 홍대에 보낸다. 젊은이들의 문화, 음식, 패션, 디자인 등을 탐방하고 오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이다. 동대문 쇼핑체험은 팀을 만들어 팀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사랑하는 여성에게 줄 선물을 사오라는 미션을 준다. 여성의 심리를 이해하기 위한 과제이다. 처음에는 모두가 교육효과에 회의적이었지만 8년이 지나자 간부들 스스로가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고 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오늘날 글로벌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이다. 다양성은 사실 경영전략의 핵심 요소였다. 다국적 기업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고객층이 있다. 그 고객들은 모두가 다른 민족, 국가, 종교,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으로써 다양성을 갖추어야 한다.


글로벌 경영에서 디자인의 중요성을 빼놓을 수 없다. 캡스에 왔을 때 어디에 디자인을 접목시킬까 고민했었고,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게 출동제복이었다. 당시 제복은 모든 보안업계가 검정색이나 회색이었다. 이것을 바꿔보자 당시 최고의 디자이너를 초빙해 산뜻한 색상과 스타일로 바꿨다.

그 다음 바꾼 것이 출동차량이다. 400대 이상의 출동차량이 24시간 전국을 누비는데 디자인이 눈에 띄지 않았다. 이것을 스포츠카처럼 날렵하게 디자인을 바꿨다. 이 디자인은 경찰청에서 순찰차 디자인을 바꾸면서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제품디자인은 물론 명함, 봉투 등 크고 작은 부분에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100가지가 넘는다. 이처럼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회사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디자인이 많은 기여를 했다.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개인의 성장을 위해 역량을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만의 브랜드가 된다. GE의 현 회장은 제프리 이멜트이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GE의 회장 하면 잭 웰치를 먼저 떠올린다. 그만큼 잭 웰치의 브랜드가 강한 것이다.

기업의 최고경영자는 회사의 얼굴이다. 때문에 경영수완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비전, 미래가치에 달려 있다. 최고경영자는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해야 한다. 나 역시 나름대로 브랜드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아무리 힘들어도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활력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만들어진 내 브랜드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CEO'이다. 이런 브랜드는 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신입직원 때부터, 그리고 학창시절부터 하나씩 쌓아가야 한다.

자녀들의 성공은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일 것이다. 사실 요즘은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다양해지고 있다. 어려서부터 이러한 자질들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나간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은 있다. 문제는 자녀들을 절대로 틀에 묶어두려고 해서 안 된다. 과거의 성공 잣대로 자녀들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이 대담하게 꿈을 꾸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주시 바란다. 

인간의 상상력은 창조력의 원천이다

G20 정상회의가 11월 11~12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열린다. 지금 우리나라는 G20의 물결이 세차게 흐르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 전 경주에서 세계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 회의가 열렸다. 환율전쟁으로 불리는 환율문제를 비롯한 세계가 직면한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였다. 우리 정부는 성공적으로 회의를 이끌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신문과 교과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주관한 '글로벌인재포럼 2010'에 참가한 노벨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정상의 지도자들은 환율전쟁 문제, G2인 미국과 중국의 합의 불가능성, 더블딕 문제 등 21세기의 세계경제 위기를 말해주는 위기적 과제들에 대하여 침뚫한 분위기를 토해냈다.

문제는 세계의 지도자들이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해결책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있다. 자기 자신에 확신이 없으면 상대방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세계사를 돌이켜 보면, 그리고 인류 역사를 관통해 보면 인류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도 인류의 위기극복 역사 속에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급진적인 미래학자들은 21세기, 더 정확히 말하면 2012년에 세계가 커다란 충격을 받게 된다고 전망한다. 먼 미래도 아니고 2년 후면 맞게 될 위기가 예견되고 있다. 서울에서 개최될 G20 정상회의가 2012년 'World Shock'의 위기 과제를 해결하고자 모인 것이 아닌가.

'World Shock', 2012년이 강조하고 있는 바는 세계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성공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위기는 바로 기회'라는 말의 참뜻을 음미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지혜로운 인재들이 있느냐이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내면에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노벨의학상 수상자인 알렉시스 카렐은 그의 명저 <인간, 그 미지의 존재(Man, The Unknown)>에서 인간과학은 모든 과학 중에서 가장 어려울 뿐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탐구해야 할 과학이라고 했다.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었던가. 창조주와 인간 자신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인간과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Know-How, Time, Imagination, Energy, Concentration, Decision-making 등 6가지의 무형 인간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 Imagination(상상력)은 창조력의 원천이다. 누구에나 인간상상력(Human imagination)은 잠재하고 있다. 자연은 인간의 상상력을 작동시켜 창조적 작품의 수준을 높은 단계로 끌어 올린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경이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 자연의 작품들은 인간의 창조적 상상력에 의해 놀라움으로 넘치게 한다. 설악산이나 금강산처럼 아름다운 경치는 화가의 그림에 의해 더욱 아름답고 고상하게 보존되고 있다. 우리가 가보지 못하는 먼 곳에 떨어져 있을 때에도 절경의 아름다움은 화가의 상상력에 붙잡혀 특별한 순간으로 그려진다. 그림을 한 번 보기만 해도 그 절경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인간의 상상력이 그려낸 그림에 의해 자연의 세계와 그 자연을 떠오르게 하는 창조성을 동시에 보고 즐기게 된다.

인간의 상상력 말고도 비전의 기술, 시간, 에너지, 집중력, 결단력이라는 인간의 무형자산을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그렇다. 창조주를 믿고, 나 자신을 믿고, 내 안에 잠자고 있는 무한한 인간의 잠재력에 도전해 보자. 지금 우리 앞에 세계적 위기로 나타난 과제들은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줄 것이다. 좋지 않은 것에서 좋은 것을 만들어 내는 창조력, 이것이 바로 삶의 지혜요, 예술이다. 이러한 삶의 지혜가 필요한 지혜의 혁명시대를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신앙이 Better People Better World 운동의 원동력임을 믿자. 새천년, 새인간, 새세계는 인간에 대한 신앙을 근거로 한 인간개발연구원이 추구해 나갈 비전이자 생생한 목표요 과제들이다. **KIDP**

박태준의 목숨을 구한 전술적 행동



저는 어릴 때부터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속담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니다. 우선 '스스로 돕는 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스스로 돕는 자가 뭘까? 마음속에서 우리나라오는 자발성으로 남을 도우는 사람을 말하나, 그렇다면 선행을 해야지, 남을 돕는 사람이 돼야지. 뭐, 그런 교훈쯤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스스로 돕는 자가 한자어로 자조(自助)이며,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란 걸 알게 된 건 고등학교에 가서였습니다. 남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내가 할 일은 다 해야 할진대, 하물며 하늘의 도움이라니. 자기의 몸과 혼, 마음과 기력을 다 써서 제 할 일을 다 한 뒤에 하늘의 도움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 10월 중순, 저는 포스코 명예회장인 박태준 전 총리의 중국 여행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남경과 강소성의 장가항시를 거쳐 상해로 이어지는 여로였죠. 10여 차례, 15시간 가까이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박 전 총리의 인생역정을 듣다 보면 곳곳에서 코끝이 시큰거리는 감동을 받곤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교훈입니다.

저와 박 전 총리가 나눈 대화 한 토막, 들어 보시렵니까.

"포항제철을 만들기 전엔 군인의 삶을 살았죠?"

"총 안 맞고,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6·25 때 우리 동기생, 중대장들 많이 죽었어. 지금 나만 남았어. 다 죽었어. 대한민국 건설하라고 하느님이 살려준 거여."

"6·25를 포천 1연대 중대장으로서는 맞이한 걸로 들었습니다만."

"포천이었지. 그 때 내 동기 중대장이 12명이었는데 괴뢰군들 내려온 지 한 달 만에 10명이 죽었어."

"하늘이 도왔군요."

"그렇지."

"하늘이 도운 건 도운 거고, 총리께서 하신 일은 없습니까."

"적절하게 철수하는 게 중요해. 괴뢰군놈들 쳐내려온 초기엔 철수하는 일밖엔 없었어. 철수할 때 절대로 등을 보이면 안 돼. 깡하고 망하는 거야. 뒤를 보면서 철수해야지."

"어떻게 하는 게 뒤를 보면서 철수하는 거죠?"

"반드시 1개 소대를 적 앞에 방어시켜놓고 다른 소대들을 철수시켰지. ... 내가 그래도 전술의 귀신이거든. ... 아~ 전쟁 참 힘들어."

"그런 전술은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반사적으로 했어. 본능적이야. 나중에 내가 육군대학(영관급 장교 교육기관)에서 1등 했는데, 2차 대전 문제로 '라인강 도하지점을 찾아라'고 하면 내가 제일 잘 찾아냈어. 내가 수학을 잘하거든."

"결국 12명 중 유일한 생존은 하늘의 도움 말고도 인간의 본능, 전술 이런 게 작용한 거군요."

"물론이지. 그게 70~80%지. 전술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돕나."

'전술적 행동'이란 생존을 위한 집중력 강한 생각, 판단, 선택, 집행을 말합니다. 대단히 인간적인 요소죠. 이런 인간적 요소를 최대한 발휘해 70~80%는 해 놓고 나서 하늘의 도움을 바라야 한다는 게 박태준 총리의 생존철학이었습니다. **김재민**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
(사)한국언론인협회 선정_인재육성부문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보건복지가족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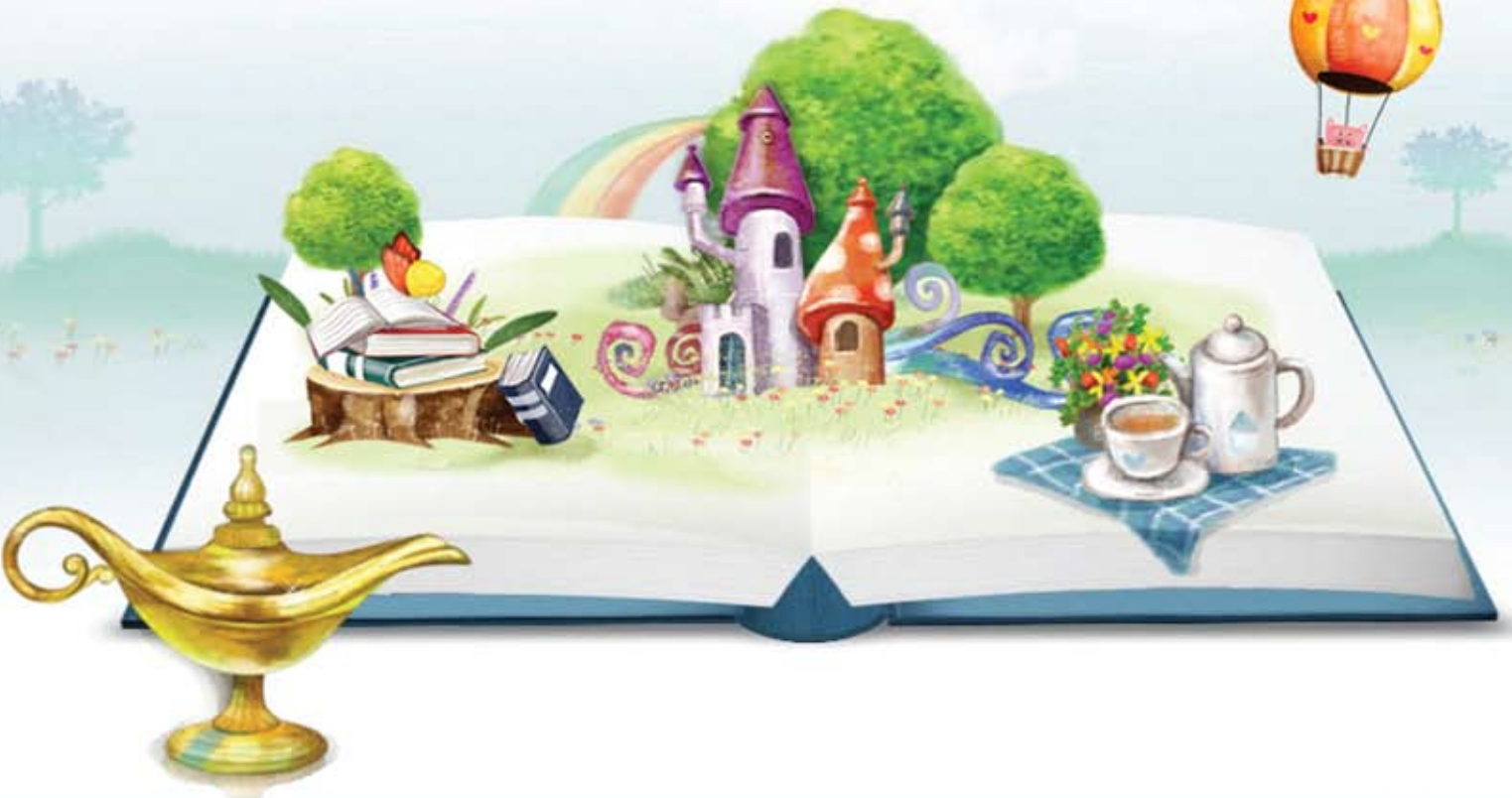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화 속 행복한 성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람들

큰 회사보다 남 다른 회사 이야기입니다
동화같은 기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낮은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
어제의 우리 모습하고 경쟁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학습하고 도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과정은 남다르지만 우리 미래의 모습은
동화같은 기업입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신성동 79-31호 에디코빌딩 대표전화 02)627-7878



교육전문기업에서 그룹화 비전을 실현합니다.

에 디코 홈스쿨

에 디코 사이버스쿨

에 디코 연수원

에 디코 CHINA

E&F 영어전문학원

에 디코 파워잉글리쉬

(주)고려진생
Koreo Ginseng Corp

에 디코 U.S.A





샘플만 써봐도알아요
고객상담실 080 022 0204



CHARMZONE
http://www.charmzone.co.kr
참존

25년간

끊임없이 피부만을 연구해 온
참존이 피부 세포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았습니다



피부 속 세포부터 탄력있게 되살아 나는
참존 25년 피부과학의 결정체 - 참인셀



CHARM IN CELL 참인셀

피부 노화로부터 자유로울 순 없을까?
참존이 찾은 해답은 바로 피부 세포(Cell)입니다.
피부의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 속 에너지를 활성화시켜 피부에
탄력을 더해주고 *토코-비타 씨 성분이 브라이팅 효과를 선사하는 참인셀
마치 새로 태어난 것처럼 당신의 피부시간을 과거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지금 참인셀의 놀라운 안티에이징 효과를 경험해 보세요.

*토코-비타 씨 Toco-Vita C 특허번호 제10-0825082호

비타민 C와 E의 기능을 모두 갖는 신개념 비타민입니다.

이중 기능성 화장품

효능효과 :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줍니다.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주문전화 (수신자 요금부담) 080-8383-000

백화점	뉴코아 강남점 02-535-5556	NC 명동점 031-380-5606	AK 플라자 구로분점 02-867-5557	현대 아이파크몰 02-2012-4127	그랜드 워싱턴 031-922-5548	AK 플라자 명동점 031-648-6129
	갤러리아 잠주점 055-781-1120	대전 세이 백화점 042-221-5559	롯데 수성점 053-783-4127	마산 대구 백화점 055-240-5606	다류브 거제 백화점 055-633-8120	대구 백화점 본점 053-422-4127
면세점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테이닝매장 032-743-4674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합승동매장 032-743-4748	신라면세점 제주점 064-710-7323	롯데면세점 02-450-6494		
	롯데면세점 인천공항점 032-743-2485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02-3484-9758	제주관광공사 지점면세점 064-780-7668	롯데면세점 제주점 064-731-4479	롯데면세점 밀도점 02-2147-6772	
스킨카운	본점 02-3485-9459	서울 대치점 02-562-3698	부산지점 051-626-8760-1	대구지점 053-793-1903	광주지점 062-942-0043	대전지점 042-826-4361